東亞日報
十九日夕刊
本紙八面
發行人 [illegible]
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振替 京城 七三〇〇
新聞價 一個月 一圓 [illegible]
廣告料 [illegible]

警務官과 思想檢事

一

이미 設置되기로 內定되엇든 總督府保安課와 警務官이 正式으로 任命이 되엇다 警務官의 職務는 全鮮警察의 高等警察及特別高等課와 事務를 統一하는데 잇다 한다 다시 말하면 朝鮮의 思潮와 思想이 더욱 「不穩」해지고 「激化」하는 外部에 그를 取締와 禁壓을 一層 더 有效하게, 一層 더 能率나게 하랴는 것이다 各警察署에 高等係가 잇고 各道警察部에 高等課 또는 特別高等課가 잇는 것 가티 總督府中央에 特히 警務官을 두어 「思想取締」에 專門케 하는 同時에 警察部가 道知事의 指揮下에 잇스면서도 同時에 警務局과 密接한 關係를 지어잇는 것처럼 警察部의 直接指揮下에 잇는 高等警察事務를 中央保安課와 密接케 하고 統一的인 關係下에 두자는 것이다

二

이것은 前者에 高等法院을 비롯하야 各所要한 裁判所에 思想專門의 判檢事를 둔 것과 好對照가 되는 一個의 現象이다 또 이것은 爲政者가 다른 急迫한 如何의 事業이 잇드라도 萬難을 排하고라도 實現하지 안흐면 안된다고 思하는 一重要事項中의 하나인 것은 勿論이다 우리는 警務官의 設置가 「時宜」에 適한지 그것을 論할 必要가 업다 또는 그로써 能히 「思想의 激化」를 組織的으로 「防止」하고 「取締」하는데 有效할는지 그것도 判斷할 意思가 업다 우리는 오즉 이것이 朝鮮의 現實에 잇서서 發生된 一個의 事實로——官吏의 任命이라는 表面上으로 그만 事實以上에 包含된 [illegible]이다

傳染病院과 學校의 接續

一

田中丸病院은 京城市內에서 傳染病을 收容할 수 잇는 唯一의 個人經營의 病院이다 그 病院을 擴張하게 된 것이 問題가 된다 擴張할 그의 敷地에 隣接된 者로서 第一女普、第一高女、中央幼稚園、救世軍士官學校의 各學校가 잇고 또 培材와 梨花各校通學生의 通路가 잇다 더구나 女子普通學校는 隣接한 境으로부터 [illegible] 抗議가 생기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勿論 傳染病者에 對하야는 充分한 設備가 잇슬 것이며 下水에 對해서도 消毒할 것이라고 [illegible] 豫想하나 萬全을 期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아모리 豫防을 하더라도 多數兒童의 通路에 接續하고 또는 患者와 看護人의 往來가 頻繁하면 間接으로 影響이 업다고 斷言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萬一에 萬一이라도 [illegible] 慮하지 안흘 수 잇겟는냐 多數兒童의 集合地이니 만큼 그 危險率은 一層 만하질 것이다

二

그 뿐 아니다 學生들에게 對한 精神的 影響도 特히 考慮치 안흐면 안되리라 問題의 病院이 人家櫛比한 西小門町에 잇섯든 것부터 衛生上으로 잘된 일이라고 할 것이 못될 것이나 그러나 普通人家보다도 學校의 隣接이 만흔 것은 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問題의 新築은 綜合病院의 모양으로 [illegible] 지도 못한 모양이다 [illegible]

는바에는 傳染病患者이나 其他[illegible]院或은 傳染病室의 變更 또는 使用 [illegible] 原則으로 한다 京城府의 順化院 家와의 隔離를 充分히 하는 것이 의 停止를 命하며 其他必要한 制限도 顯仁洞一隅에 잇지마는 그것 맛당하지아니할가 病院取締規則을 할수잇다」고 規定하다 어느 조차 市外로 移轉시키자는 運動이 에 分明히 「道知事는 衛生其他 都市計劃에 依하고 該病院은 市街에 잇지안흔가 病院主와 및 衛生當 公益上 必要가 잇다고 認할 時는 病院의 充分隔離하는 것을 安全第一의 局의 反省을 求한다

九十六團中六十團에 閻錫山氏動員令

津浦線의 側面을 衝하기 爲하야

大名方面에 集中終了

【北平十八日發電通】 山西軍事機關의 確實한 消息에 依하면 閻錫山氏는 本日 全軍九十六團(十二師)中에 六十團(七師半)에 動員令을 下하얏다 이미 津浦線의 側面을 衝하기 爲하야 大名方面에 集中이 終하얏다 그리고 閻錫山氏는 二十團을 豫備隊로 하고 殘餘에 十六團으로 하야금 治安維持에 當케 하기로 되엇다

國府機關을 封鎖

【北平十八日發電通】 山西軍은 本日 國民政府의 同文館 市機關 總司令部 公署를 封鎖하얏다

湖北方面과 隴海線에 西北軍은 主力集注

馮氏는 아즉도 山內城에 잇고

一切指揮는 鹿氏擔任

【北平十八日發電通】 西北軍은 全軍의 三分의 二를 湖北方面 [illegible]에 出動케 하야 孫良誠 指揮下에 鄭州以西를 耕作케 하얏다 그리고 三分의 一은 [illegible] 잇는바 一切의 軍事指揮權은 鹿鍾麟氏에 一任하고 [illegible] 測한다

先鋒鄭州到着

【[illegible]】 [illegible]는 十八日 鄭州에 到着하얏다 이것은 山西西北 [illegible]

福建을 掌握한 盧興邦一派

閻錫山系와 通謀하고

江蘇로 切迫形勢

【上海十八日發電通】 政局이 날로 緊張을 加하는 이때 福建省에 「구데타」를 斷行하야 福建의 實權을 掌握한 盧興邦一派는 閻錫山系와 通謀한 兵士하며 南京側의 [illegible] 狙하야 福建으로부터 陸路浙江에 入하야 更히 江蘇省에 攻入하려는 形勢에 잇다 萬一 福建의 反旗가 北上한다 하면 南京의 背後를 衝하게 되므로 蔣介石氏는 昨夜 南京에 잇는 中央軍兵卒約二千名을 浙江省 杭州에 向하야 輸送하얏는데 이 軍隊는 今朝 來 上海郊外 [illegible] 滬杭鐵道로 錢塘南下하는 中이다 依然 戰時氣分이 橫溢하더라

天津의 特別戒嚴

【天津十八日發聯合】 靑年軍의 軍事行動開始는 大略一週間前부터 [illegible]

山西軍의 軍資

一個年分은 充分?

【北平十八日發電通】 山西軍의 軍費는 從者 國民政府가 承認한 山西金融整理公債 二千四百萬元 及 關稅收入月額 百五十萬元 鹽稅收入 [illegible] 百萬元 其他雜稅를 綜合하야 一千萬元合計二千七百五十萬元에 達하며 山西軍의 全兵力은 十個師團의 每月軍資는 一百萬元으로서 正히 一年을 支持함에 足하다고 觀測된다

日本의 七割要求는 國防上의 最小限度

若槻全權의 [illegible]

餘地업서 米[illegible] 反駁

【[illegible]十七日發電通】 十七日의 [illegible]會議의 結果는 各國關係[illegible] 綜合하면 若槻日本全權의 [illegible]는 가장 强硬하야 特히 六割說을 反駁하야 七割을 主張한 點에 잇서 [illegible]米利加側으로 하야금 [illegible]

日本의 七割要求는 國防上의 最小限度임으로 日本이 七割로써 滿足하라 하는 所以는 全혀 「[illegible]」 不戰條約에 違反하는 것으로 日本이 他國을 [illegible]하라 함이 아니라 그리고 亞米利加가 日本에 六割을 强要하라 함은 日本으로서 恒常他國의 脅威를 受케하라 하는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不戰條約의 精神에 反하다 고 論旨를 進하얏다 한다 同會議가 長時間에 亘한 것의 日本의 反駁에 對하야 相互意見을 論難한 때문이 바 米日의 主張의 距離는 오히려 조금도 조바지지 안헛다 但主力艦建造期를 一九三六年으로 延期하는 [illegible]

無期延期된 英米佛會議

佛國內閣의 總辭職으로

日英米會議는 繼續

【倫敦十八日發電通】 佛蘭西側 英、米、佛三國會議는 本日 再開할 豫定이엇스나 佛蘭西內閣辭職으로 無期延期되엇다 그러나 日英米三國會議는 [illegible] 七十二萬噸要求를 中心으로 하는 [illegible]

對蔣絶緣을 絶叫 中央政府를 否認

新政府를 樹立하랴는 閻氏

今明間宣言을 發表

【北平十八日發電通】 閻錫山氏는 今明中에 中央政府否認, 蔣介石氏와의 絶緣을 絶叫하야 새로 執監委員을 選擧하고 新政府樹立을 圖한다고 宣言할 段階인데 宣言의 大要는 如左할 터이다

余는 이에 第一、二、三期의 執監委員中으로부터 共産黨員을 除外하고 國民黨幹部會議를 開하야 投票에 依하야 第四期委員을 選出하야 모든 問題를 解決하겟다

[illegible]氏는 十五日朝 [illegible] 特別列車로 着奉하얏다 黑龍江主席인바 近近 對露善後策、對南方策等、軍制改革에 關한 重要會議가 開催될 터이다

法院改造協定 調印終了

【上海十八日發電通】 上海臨時法院改造新協定은 昨夜五時 南京에서 中國과 列國과의 間에 調印을 終了되엇다 調印國은 英、米、和蘭、諾威、巴西 五國으로 佛蘭西는 訓電未着으로 아즉 調印치 안코 協定全文은 佛國調印後 發表된다

一個月以內 叛亂을 討平

軍隊를 集中、最後까지 奪回戰

◇……蔣介石氏의 豪言

【南京十九日特電】 閻錫山氏의 挑戰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非常히 緊張하야 中央臨時會議를 開催하얏는데 會議에서 蔣介石氏는 叛亂을 爲하야 一個月以內에 叛亂을 討平한다 豪語하고 直系軍隊를 南京附近에 集中하야 最後까지 奮鬪하기로 하얏다

比島獨立에 反對

루—스벨트氏

【華盛頓十七日發電通】 니콜라스·루—스벨트氏는 米國上院의 比律賓獨立問題審査委員會에서 如左히 力說하얏다

比島의 獨立은 極東의 不安定을 齎來하는 것으로 比島에 獨立을 與함은 마치 安置되어잇는 火藥

獨立勞働黨을 「맥」首相이 脫退

左翼分子의 反抗으로

【倫敦十七日發聯合】 「맥도날드」首相은 十七日 獨立勞働黨으로부터 正式으로 脫退하얏다 右原因에 對하야 非公式으로 報하는바에 依하면 獨立勞働黨의 大部分을 形成하는 左翼分子의 勞働黨에 對한 態度가 最近 더욱 더욱 反抗的으로 되는 中인 때문이라 觀測한다

後繼는 亦是 「타」氏

日外務省觀測

【東京十八日發電聯合】 佛國內閣總辭職에 關하야 外務省에서는 아즉 何等의 公電도 到着하지 안핫스나 當局의 觀測으로는 이러한 [illegible] 「타르듸에」氏에 組閣을 命할 것이라 생각되며 所謂 左派、中央聯合內閣이 組織될 것임으로 重要閣員의 大部分은 그대로 머무를 것이며 故로 內政外交 共히 何等 變化가 업고 軍縮會議의 [illegible]에도 何等 影響이 업스리라 觀測한다

「포」氏再起?

『타』氏도 속마음은 잇는 貌樣

玆數日이 注目의 的

【巴里十八日電通】 佛蘭西內閣 [illegible] 延期가 되엇다 右에 就하야 後繼問題에 關하야 當地政界一般의 觀測으로는 「두메르그」大統領은 前首相 「포앙카레」氏의 再起를 要求하고 軍縮全權인 「타르듸에」 「브리앙」兩氏도 海軍外務長官으로 하야 各各 入閣케 하야 新內閣을 組織케 할 것으로 觀測된다 然而 最近에 健康을 害한 「포앙카레」氏가 이 組閣을 承諾할지 疑問이라 한다 또 「타르듸에」氏는 病狀이 好轉하지 안핫스나 自身이 組閣하는 것도 辭하지는 안흘 듯한 形勢다 어데든지 이 數日은 政局不安定이 繼續될 것으로 觀測된다

佛蘭西內閣의 總辭職에 依하야 軍縮會議의 佛國全權은 [illegible] 正式會議는 不可能하게 되엇다 然이나 佛國內閣成立까지는 今後의 會議는 英、米、日三國會議에 集中될 것이다

大國氏保釋出所

【東京十八日發電通至急電報】 疑獄事件의 大立物 天岡直嘉氏는 十八日午後 八時 東京地方裁判所 [illegible] 保釋을 許可되엇는데 [illegible] 保釋出所하얏다

人事往來

◇中與雨氏 渡米中이든바 今十九日午後七時 歸京

閣議決定人事

【東京十八日發電通】 十八日閣議에서 決定된 人事는 如左하다

特命全權公使(二等) 總領事 藤田榮助
羅馬尼國駐箚被仰付

犬養總裁激勵電報

【東京十七日發電通】 犬養政友會總裁는 十七日 全國自黨候補者에 對하야 激勵電報를 發送하얏다

犬養老의 選擧區入

民政系樂觀不許

【岡山十九日發聯合】 [illegible] 政友會總裁는 十九日 高梁町을 出發하야 [illegible] 選擧區에 入한 犬養總裁 [illegible] 政府의 西村丹治郎氏도 [illegible] 되는 바 그 때문에 民政系의 樂觀을 不許하는 形勢가 되엇고 또 犬養氏가 選擧區入에 對하야 [illegible] 九州行의 往還에 [illegible] 同氏一流의 苦肉策이라고도 한다

寶元、日田兩氏 立候補를 辭退

【東京十八日發電通】 立候補辭退를 傳하든 [illegible] 兩氏는 十八日 正式辭退하얏다 [illegible] 候補總數는 八百四十으로 되엇다

[illegible]을 엇구자 하는 것과 한가지다 米國은 이미 中國에 對한 門戶開放主義에 依하야 極東에 對한 地步를 確定한 것임으로 새삼스럽게 放置하는 것은 米國이 極東에 마를 그라 하기를 조하하지 안흘 어든지 두려워하든지의 感을 與하야 世界에 對한 面目을 失墜하는 것이다

最後의 奮戰도 今日뿐 總決算日切迫!

各政黨의 戰跡豫想

【東京十八日發電通】 國民審判의 政治的總決算은 明日로 迫하얏다 各派一樣으로 死力을 盡하야 거의 最後의 白熱中에 在한데 此際 民政、政友及無産諸派는 如何한 戰跡을 豫想하고 잇는가?

民政黨 當選確實者 二百二十名

民政黨選擧本部가 十八日까지의 全國各地로부터의 情報에 基하야 當選確實하다고 보는 者는 東京十二名、神奈川六名、[illegible] 栃木五名、北海道十名、靑森二名、秋田四名、山形三名、岩手五名、宮城二名、福島六名、長野七名、新潟六名、富山一名、石川二名、[illegible] 九名、三重三名、岐阜四名、大阪十一名、京都七名、奈良二名、和歌山四名、兵庫九名、岡山三名、廣島八名、山口三名、鳥取一名、島根五名、香川三名、愛媛四名、德島三名、高知四名、福岡七名、熊本六名、佐賀三名、長崎四名、大分四名、宮崎二名、鹿兒島三名、沖繩二名、計二百二十名이다

政友會 當選圈內者까지 百九十九名

政友會에서는 各方面의 情報를 綜合하야 同派의 當選確實한 者를 大體左記와 如히 豫想하고 잇다

東京十名、神奈川二名、埼玉四名、千葉四名、茨城五名、山梨二名、群馬三名、栃木四名、靑森一名、山形二名、岩手五名、宮城二名、福島二名、長野四名、新潟五名、富山一名、石川一名、福井二名、靜岡五名、愛知四名、京都二名、滋賀二名、奈良一名、和歌山一名、兵庫七名、岡山二名、廣島五名、山口四名、鳥取二名、島根一名、香川三名、愛媛二名、德島一名、北海道八名、計百五十四名 其他當選圈內에 彷徨하는 者七十一名中 十八日午後本部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illegible]

小會派 國、革、中 十七名

▲國民同志會(四名) 武藤山治(大阪二) 田中譲(大阪一) 堀部久太郎(京都一) 鷲野米太郎(滋賀)
▲革新黨(二名) 大竹貫一(新潟二) 淸瀨一郎(兵庫四)
▲中立(十一名) 太田信治郎(東京一) 小寺謙吉(兵庫二) 多木久米次郎(兵庫三) 尾崎行雄(三重二) 田中善立(愛知一) 小泉策太郎(靜岡二) 鶴見祐輔(岡山一) 中山太一(山口一) 田渕豐吉(和歌山一) 村田不二三(北海道二)

以上을 分類하면 國同四名、中立의 田中、村田、小泉의 三名計七名은 政友會、革新二、中立六名(尾崎、田渕의 純中立을 除하고)計八名은 民政黨으로 看做할 수가 잇다

無産黨 確實者十四名

形勢如何로 四五名增加

十八日外지의 情報에 基하야 各無産黨本部가 當選確實하다고 보는 者는 左의 十四名이다

社會民衆黨 安部磯雄(東京二區) 片山哲(神奈川二區) 鈴木文治(大阪四區) 西尾末廣(大阪一區) 龜井貫一郎(福岡四區) 小池四郎(福岡二區)
日本大衆黨 加藤勘十(東京六區) 松谷與二郎(東京五區) 河上丈太郎(兵庫一區) 杉山元治郎(大阪五區) 淺原健三(福岡二區) 吉田賢一(兵庫[illegible]區)
勞農黨 河上肇(京都一區)
全國民衆黨 田萬淸臣(大阪一區)

此外 形勢如何로는 四、五名 增加

領裁權撤廢交涉問題로

米公使十九日南下

【北平十八日發電通】 亞米利加公使 [illegible]氏는 十九日午後發、津浦線으로 南京에 赴하야 三、四週 滯在하고 國民政府와 領事裁判權撤廢問題의 正式審議를 開始하리라

橫說竪說

被選者들 殺害한 逃者、南民에 게 被殺은 「奇特」치 못한 殉職?
□
밥이 업서서 굶고 夫 못한다。어 것은 天災로 돌리고。月謝金 못내서 放送을 빼앗겻다。이 것은 人災。
□
窮民救濟는 口頭로。食券差 押은 行動으로。佛行政도 가 지가지。
□
破產窮民을 울리는 執行狀 二 週間에 [illegible] 눈물이나 執 行해 가거라。
□
商人안해의 地位問題에 外 담이 부러서 佛國內閣이 瓦解。
□
佛國政變에 外담이 부러서 軍縮會議가 遲延。
□
女性의 勢力이 이러케 發展하 면 地球의 存在도 危險할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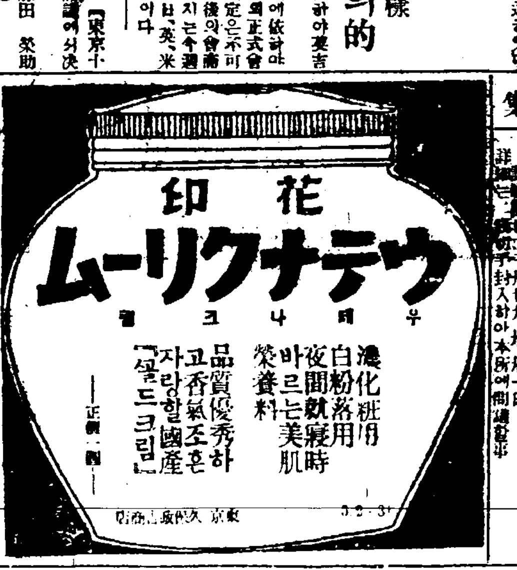
指定 崇實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一學年百五十名
出願期 三月五日까지
試驗日 三月六、七、八日
平壤府新陽里

釜山府大廳町二丁目 代表電話二四二番
釜山 松井眼科病院
院長 醫學博士 松井式部

開城學堂商業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一年級生約百二十名 二年三年級生 若干名
出願期日 自二月十五日 至三月二十八日
試驗期日 三月二十九日 三十日 三十一日

洋服業者諸位에
堀貫次商店

生徒募集
平安南道立醫學講習所
募集人員 約六十名
試驗期日 三月廿九、卅、卅一日


花印
ウテナクリーム
우테나크림
濃化粧用
白粉落用
夜間就寢時
바르는 美肌榮養料
品質優秀하고
香氣조흔
자랑할 國産
「우테나크림」
東京 久保政吉商店

咸興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名 試驗 三月十一日、十二、十三日(詳細問議)
第二、三學年 若干名 試驗 四月四、五日

公認 自動車運轉士養成
教授十餘年 絶對責任
朝鮮自動車研究所

地方出張員募集
外交販賣에 自信잇는 [illegible]
北米倉町 二六 電話[illegible]
岡田謄寫堂支店

每週土曜發行
朝鮮週報
紙代 一個月分 二十錢 一個年分 二圓
京城府水下町 朝鮮週報社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二十名
詳細來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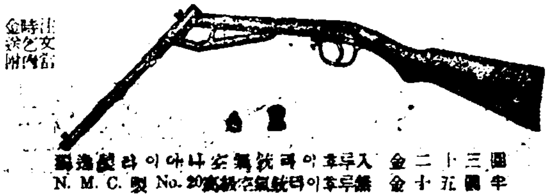
元祖元羅
紳士淑女의 春夏衣服次는 「덕천항라」로
德川元羅
福 囍

平安南道 德川産業組合

五山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 三月廿一日限 試驗 三月廿二、三日
第二三四學年 補缺 若干名 出願 三月末日限 試驗 四月一、二日
(京義線古邑)

恩給 [illegible]

大阪用達合資會社
大阪市南區西淸水町


N. M. C. 製 No. 20

高級空氣銃特賣

帝國文藝クラブ

筆生

德 金 銀 白金
京城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三光社

最新식子

盛水不洩의嚴戒裡에 光州學生公判開廷

早朝부터法院內外大混雜

四十九名全部出廷

◇光州에서 本社特派員 崔容煥發電◇

작년십일월삼십일 전남라주역(羅州驛)에서 일본인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생도수명이 조선인녀학생을희롱하얏다는것이 사건화대의직접원인이되어 일본중학생 대 조선인학생간에충돌을거듭하야 쌍방의부상자다수를내이는동시에 일시조선인학생삼사백명의 총검거를보게되엇든 광주학생사건의피고 황남옥(黃南玉)(八)에하사십구명에대한 폭력행위등처벌(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 위반급상해(傷害) 가택침입(家宅侵入)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등사건의 제일회공판은 금십구일광주지방법원제일호법정에서개정되엇다 사건은 원래그발단이극히소소한데서시작된것이나 작년십일월삼십일이래조선인대일본인학생들사이에 회수를거듭한충돌로 다수한부상자를내엇슬뿐만아니라 쌍방의충돌이거듭됨을따라 조선인학생들의 다수한희생자를내이게되고 이와동시에 평소조선인학생들의 차이고뭉치엇든 심상치아니한저기압(低氣壓)은 마츰내표면잔잔한듯하든조선학해(學海)에일파, 만파의어지러운파문(波紋)을일으키게되어 조선교육계초유의큰충동을준만큼일반세상의주목은물론 재판소당국자들도 당일은이상한긴장미를씌고 정식공판의막을열게되엇다

으로 공판이개정되엇는데금번속개공판은 지난번 공판당시에 피고들의 본적주소 성명년령직업등을물은 준비공판의 뒤입으로목촌 재판장은 먼저공판속개

(金)량배석판사와 아울러 립회 주정(酒井)검사가 착석하고 특별선언하고 즉시피고들에 대하야 사실심리를 시작할려 이라는것 변방청석에는 제류(諸留)법원장 내량정(奈良井)검사정이 립석하얏다 이찰나에 변호사 고사건담임변호자리인(李仁)김병로(金炳魯)등을 비롯하야 광주서광설(徐光卨)외칠명의렬석 측에서는 먼저별항과가티 전긔 열네명에대한 병합치에 대한 항의가이엇다

雨水에春雨

금십구일이 우수(雨水)이니 봄ㅅ비시철로돌어간다 ㅅ배마츰 철차즌봄ㅅ비가작십팔일 저녁에 금년최초의 봄ㅅ비가 부실부실나리어 적설을녹이드니 산천에는 벌서봄과운이 동하야보인다 이우수절호의 시각은오후 여섯시이다

早朝부터法院混雜 鐵甕城가튼警戒網

광주전시민은물론이오 멀리제주도(濟州島)완도(莞島)경성(京城)등각방면으로부터 아들과동생들의공판을방청하기위하야 작십팔일에 이미광주(光州)에와서묵고잇든 각피고들의부형사매를비롯하야근방각지에서몰려온피고들의친척고우는당일 꼭두새벽부터 재판소로몰려들어 법정내외는대혼잡을일우엇다가게정전방청권을시키엇스나 원악법정이방청객특칠시명밧게수용치못하는협착한곳임으로 입장하지못한방청인은입장한방청자의몃배를더하야법정밧게넘처는피고들의친척고우는 법정밧그로배회하며 무거운한숨을지어냇슴이엇는데 당일일은아침부터법정내외를경계하는경찰의어마어마한경계는 더욱삼엄하야졋고 그외각학교를필두로 시내요처요처마다를부어도생들엄숙한경계를하얏다

自動車兩臺로移送 四十九名이出廷

사건관계피고사십구명은 (십구일)아츰에 무등산(無等山)하에 [illegible] 하야잇는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로부터 동형무소자동차와 전남도경찰부자동차백호와 이백삼십팔호로실어날으기시작하야 공판개정전이미관계피고들을 모다 이송하야 광주지방법원제일호법정에 출정케하얏는데 당일출정한피고는 황남옥(黃南玉)등사십구명으로 그들의대부분은 이십내외의 나히어린생도들로 머리에용수를쓴채두손에 한갑을차고 법정안에들어섯다

被告學生中十四名은 讀書會事件에關聯

―법률의정신에위반된것이라하야 변호사단에서문제를삼게된다고―

今回公判後再審理

별항과가티금번사건관계자로출정한피고 사십구명중에는 ▲金相奐▲金晉煐▲尹成昊▲金大元▲金戊[illegible]▲朴鍾鎭▲文興淵▲尹在炳▲金炳基▲金容俊▲姜英煥▲金淵南▲李亨雨▲曹吉龍 등열네명이현재광주지방법원예심중에잇는 소위독서회(讀書會)라는비밀결사사건에관계가잇다하야 금번사십구명과가티공판을밧는한편으로 이것이확정나는대로 전긔열네명은다시비밀결사사건의 예심심리를밧게될터이라는데 이는법치주의의정신에위반이되는것으로 형법(刑法)제사십오조는 그가튼병합죄(倂合罪)의경우에 어떠케 처치할것이라는것을 밝혀노한 [illegible]에불구하고 사건담임 예심과 검사국에서는 그법범정신에배치하얏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그가티열네명피고가 복하예심중에잇는 비밀결사사건에관계가잇다면 그 열네명피고만은 공판에부치지안코 병합심리를 하는것이 정당하다는것으로 이로인하야사건담임변호사측에서는 큰문제를일으키게될터로그 재판장을 비롯하야 [illegible]

開廷劈頭에 辯護士抗議

十四名分離審理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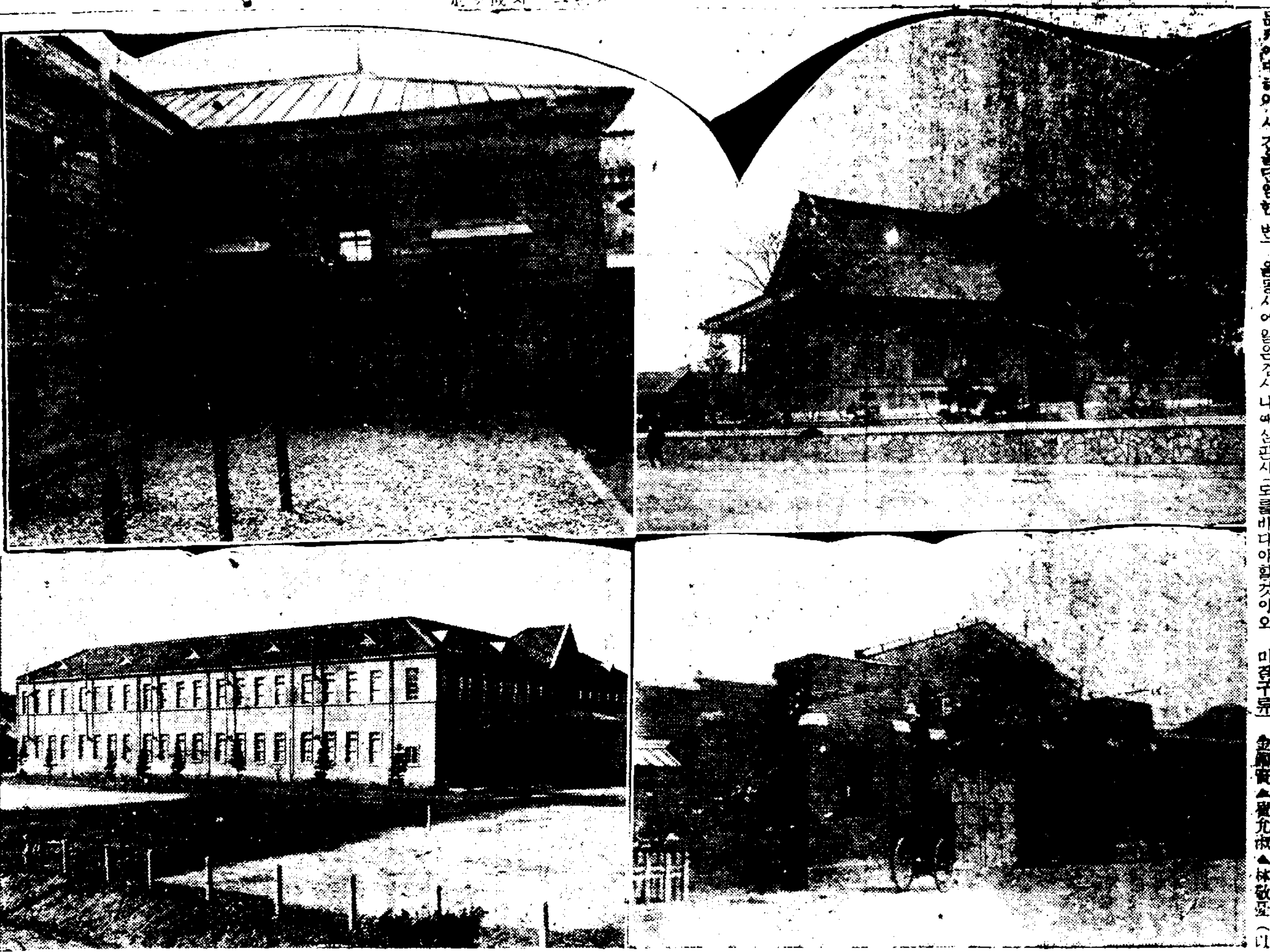
어떠게 언시! 정각이되어목촌(木村)재판장을 비롯하야 삼천(森川)길 [illegible] 큰문제를 일으키게되엇다 동사건공판중에큰파란을일으키게될터로그 법률조문은다음과갓다

第四十五條 確定裁判을經過치아니한數罪를倂合罪라고함 或어떤罪에對하야確定裁判이잇섯는때에는其罪와其裁判確定前에犯한罪와를合倂罪라함

금번광주학생사건에예심에대하야사건예심심리를담임하얏든광주지방법원등본(藤本)예심판사의 사료(思料)하는각 피고에대한 적용법률조문은 다음과갓다

豫審判事가指摘한 今回事件適用法律

被告等所爲中傷害의點은刑法第二百四條에▲多數의威力을示하야脅迫하고 또는數人이共同하야暴行한點은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第一條에▲警察官의 多衆運動禁止命令에違反한點은保安法第二條에 ▲農具室에侵入한點은刑法第百三十條에 ▲政治에關하야 不穩한言動을하고또는他人을煽動敎唆하야治安을妨害한點은保安法第七條에 ▲不穩文書를 頒布하야點은



◇寫眞―【右上】光高學生四百餘名을檢擧收容하엿든武德殿【右下】現在百七十餘名學[illegible]【左下】光州高普校全景

「分離는不可 併審이至當

【擔任辯護士李仁氏談】

新刑訴精神에違反

별항과가티열네명에대한병합죄(倂合罪)의심리분리(審理分離)문제에대하야 사건담임한 변호사리인(李仁)씨는말하되 『이개이상의범죄사실이 잇슴을동시에알은검사나 예심판사는 그량죄를 동시에병합하야 수사하는것이 신형소(新刑訴)의정신이엇음을불구하고그와분리하야 일개만공판에 회부하고 일개를예심에 그대로부처두엇다는것은 적지아니한과오(過誤)라고생각하는동시에 그결과는피고들에잇서서는 적지아니한불리한것으로 그가튼검사, 판사의과오는 일단종권에보지못하는희유의악례(惡例)이라 할것이다 그럼으로 열네사람에대한공판은그들이관계하얏다는비밀결사인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사건과병합심리를하여야당연한줄로압니다』하는바그를병합치아니하면 피고열네명은 이중형의언도를바다야할것이오 미결구류(未決拘留)도길어질것이다

◇明日出廷할女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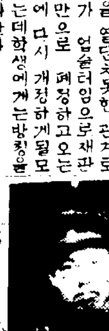
(圓內)許貞琡 (上段右로부터)宋桂月、崔允淑、朴桂月 (下段右로부터)李順玉、崔福順、金[illegible]

市內女學生事件 豫定대로廿日開廷

◇재판장사실심리에쓰칠듯

出廷할被告는八名

시내각녀학교시위운동사건의주모자라는 혐의를바더 보안법위반으로 긔소되어 경성지방법원공판에부친 ▲許貞琡(槿友會)▲崔福順▲金順實▲崔允淑▲林敬燮(以上梨花女高)▲李順玉(梨花專門)▲宋桂月(女子商業)▲朴桂月(女子美術)등여덟명의 제일회공판은 오는이십일 오전열시경에 한바와가티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개정하기로되엇다 재판장은 단독부금천(金川)판사, 립회검사는 고등법원 사상전문인 이등(伊藤)검사, 녀학생들의공판관임으로세상의큰주목을이끌게되엇슴에더러 법관들도 보통사건과 달리이상한 긔분을가지게 되엇스며 공판은 오전열시경에 담임변호사 김병로, 김용무, 강세형, 리인, 양윤식(金炳魯, 金用茂, 姜世馨, 李仁, 楊潤植)의 오씨중 김병로, 리인씨등은광주(光州)학생공판관계로 출장중이며 김용무씨등은 미처긔록을 열람치못한 관계로 변론할수가 업슬터임으로 재판장의심리만으로 폐정하고오는 이십사일에 다시 개정하게될모양이다 녀학생에게는방청을 금지하리라한다



鄭黃勳

市內學生事件主謀 第二次今日送局

―십칠일송국의뒤를니어두차례로 인제경찰의손에잇는학생은업다―

拘束不拘束廿六名

지난달십오일 이후 시내각학교학생들이 광주사건으로 인하야 만세동요를이르킨사건의주모자들로 그일부는지난 십칠일종로서로부터 검사국에 송치하고남어잇든 주모자일부인 휘문학교학생과 배재학교 학생이십여명은십구일 신체구속된사람과 불구속스물세사람 도합 스물여섯사람을 역시보안법 위반으로검사국에 송치하고 그남어지학생들은전부석방 하얏다 제이차학생만세사건 관계자들의 경찰취조는이것으로써종결된셈이다

▲拘束ㅣ徽文 四年生 鄭典勳(一)同李興永(一)同五年生鄭黃勳等三名▲不拘束ㅣ徽文崔英煥、李延禹、李軒榮、曹圭煥、田淑德、盧載[illegible]、李瓚、楊柱昇、金[illegible]、宋在雲、洪[illegible]、康[illegible]、[illegible]金永[illegible]等二十三名合計二十六名

光州學生의 原籍과住所

莞島郡莞島面長佐里九七 光州郡光州面須奇屋町光一旅館方
光州高普二年生 黃南玉(一八)
潭陽郡昌平面上三里二六四
光州郡須奇屋町朴正煥方
光州高普二年生 高光信(一八)
光州郡光州面錦町八八
光州高普二年生 鄭相烈(一八)
順天郡順天面大手町六八
光州高普二年生 任[illegible](一八)
光州郡錦町五
光州高普二年生 具[illegible](一六)
木浦府務安通
光州須奇屋町[illegible]旅館方
光 高 二年生 金毅源(一九)
平南順川郡順川面西邊里
光州郡光州面錦溪里
光 高 二年生 崔[illegible](一八)
莞島郡青山面[illegible]里
光州郡光州面錦溪里七五
光 高 二年生 金安鎬(一八)
光州郡光州面錦溪里
光 高 二年生 [illegible](一八)
莞島郡長山面[illegible]里
光州須奇屋町光一旅館方
光 高 五年生 金同南(二一)
高興郡古邑面松亭里八七
光州郡錦溪里金君壽方
光 高 三年生 金 鎬(二一)
谷城郡谷城面邑內里
光州錦溪里[illegible]方
光 高 二年生 金東煐(一九)
潭陽郡金城面大成里八二六
光州郡錦溪里文金坤方
光 高 三年生 宋萬洙(一八)
莞島郡古今面尙洛里八六一
光州郡錦溪里朴光信方
光 高 二年生 金淵南(二〇)
順天郡松光面洛水里
光州郡須奇屋町李正煥方
光 高 二年生 李亨雨(一九)
康津郡城田面水[illegible]里九三
光州郡城底里湖南旅館方
光 高 二年生 姜英煥(一六)
和順郡和順面[illegible]里
光州郡楊林里鄭尙厚方
光州農校四年生 曹吉龍(二一)
慶尙北道安東郡豐北面五美洞
全南羅州郡羅州面錦[illegible]
光 高 五年生 金晉煐(二二)
光陽郡骨若面大仁里二六〇
光州郡錦溪里朴光信方
光 高 五年生 金相奐(二三)
康津郡鵲川面峴山里五〇九
光州須奇屋町[illegible]方
光 高 五年生 金[illegible](二二)
羅州郡羅州面錦町五
光 高 四年生 金吉根(二二)
濟州島濟州面禾北里
光州錦溪里安基鏞方
光 高 四年生 康洵鎬(二〇)
長城郡北上面德在里五八八
光州錦溪里朴光信方
光 高 二年生 金炳基(一八)
務安郡石津面九山里四五〇
光 高 三年生 張[illegible](一九)
務安郡石津面鶴山里四八四
光農校 五年生 崔泰周(二四)
和順郡和順面鄕廳里一四
光州須奇屋町金容杰方
光 高 五年生 朴[illegible](二三)
和順郡同福面漆井里
光 高 三年生 吳[illegible](二五)
光州松汀里一〇二七
光 高 五年生 閔泳興(二二)
光州城底里尹台日方
羅州郡羅州面朴丁里九九
光 高 五年生 崔殷澤(廿)
莞島郡所安面榧子里一〇九〇
光 高 二年生 鄭[illegible](一九)
康津郡古郡面城東里三三〇
光州郡瑞坊面[illegible]里七〇三金[illegible]方
光州錦溪里朴東文方
光 高 五年生 金容大(二三)
海南郡花山面[illegible]里
光 高 四年生 [illegible](二三)
濟州島新左面[illegible]
光州瑞南里[illegible]方
光 高 四年生 金大元(二二)
濟州島新左面朝天里
光州鄕社里安基鏞方
光 高 五年生 金時貞(二二)
麗水郡突山面[illegible]里
光州錦溪里[illegible]方
光 高 五年生 [illegible](二三)
潭陽郡[illegible]面[illegible]里
同 二年生 李仁[illegible](一八)
潭陽郡南面[illegible]里一七五
光州須奇屋町[illegible]方
同 四年生 朴鍾埴(二〇)
務安郡三鄕面[illegible]里一七五
同 五年生 李[illegible](二三)
靈岩郡靈岩面[illegible]里五五五
光州城底里朴[illegible]方
同 五年生 文興淵(二〇)
莞島郡青山面東村里五四六
光州城底里新興旅館
同 五年生 車世英(二一)
長興郡有治面丹山里一八九
光州鄕社里鄭相模方
同 二年生 魏鍾烈(一九)
光州枝汀面[illegible]里一五八
同 一年生 朴仁[illegible](一九)
光州郡瑞坊面[illegible]里
同 三年生 李俊範(一九)
光州郡牛山面[illegible]里七三
同 四年生 鄭周永(二〇)
同種門里二五四
同 二年生 吉賢男(二三)
光州須奇屋町一〇七
同 三年生 [illegible]
光州種門里三二八
同 四年生 尹在炳(二〇)
咸平郡[illegible]面[illegible]里一五五
長城郡南面[illegible]里
光州須奇屋町
同 四年生 [illegible]
木浦府港町一丁目一
光州須奇屋町[illegible]方
同 二年生 [illegible](一九)
光州城底里九二
同 二年生 鄭大麟(一九)

光州學生公判日에 市內四校生盟休

◇십구、이십량일맹휴선언◇

檢束學生은即時釋放

광주학생만세사건의 원인되는 광주학생충돌사건과 피고 학생들의 공판이십구일부터 광주 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엇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시내각학교 생도들은그들이 공판을 밧고잇는동안에는 우리들이 공부를할수가 업다고하야 십팔일 시내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校)생도칠백여명이 몰연휴학을 선언하고 모다집으로 돌아갓는데 십구일에는 경신학교(儆新學校)생도 백여명이 또한동요하게 되어동일오전아홉시반상학을하자마자 오늘따래일은우리가공부할수업다고일제히뛰어나서교문을나옴으로미리부터경계하고잇든경사 동경관대들은나가는학생들을제지시키고 동교사년생조원희(趙元熙)동삼십여명을 검거하야 동서에동행을하얏다가 즉시석방하얏스며 청년학관(靑年學館)과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생도들도십구、이십량일동안 휴학을선언하고 모다집으로돌아갓다한다

徽文、中東生 約半數欠席

◇중앙생출석은세사람뿐

今日市內各校出席率

광주학생(光州學生)공판을동정하야 십팔일휴학을선언한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校)는 십구일오전책보를싸고등교한학생이 전교생칠백명중에겨우세사람이엇고 십구일휴학을단행한경신학교와 청년학관과 협성실업은 수업을못하고잇스며 기타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校)와중동학교(中東學校)와고학당(苦學堂)등은평소보다반수가량이나 결석이되엇고 동덕녀학교(同德女學校)근화녀학교(槿花女學校)등도 평소보다현저한결석자들이엇다

寫眞은〔右로부터〕

曹吉龍 金毅源 金淵南 朱萬洙 康洵鎬

金同南 鄭大麟 金東煐 黃南玉 李俊範

車世英 高光信 姜英煥 閔泳興 [illegible]

金吉根 魏鍾烈 金容俊 李亨雨 [illegible]

鄭相烈 文興淵 金時貞 朴鍾埴 [illegible]

崔泰周 [illegible] 金安鎬 鄭[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容大 金相奐

金晉煐 鄭周永 [illegible] 金炳基

二百群衆郡廳에殺到 河川改修를또陳情

◇道土木課回電듯고야解散◇

雨期압둔住民猛運動

【안악】지난삼일오후삼시경에 황해도안악군읍내(安岳邑內)소천(小川)량측의 주민남녀이백여명이 군청안뜰에 쇄도하야 대표고봉수(高奉洙)씨외수명이군수홍하규(洪河奎)씨와안악면장에게 하천개수문제에대하야 또다시속성(促成)하야달라는진정이잇섯는데 그내용은년부터피해를거듭하야오는 소천량측의 삼백여호주민은해동하야오는 신춘을당하야소천해빙기(解氷期)와우기(雨期)가박두하야 개수(改修)나환포(移浦)에대한속청을 강요하지안을수업는동시에사활의국경에 당한우리는당국자의 책임잇는 답변을들려주기전에는 죽기로써해산할수업다고 강경한태도를 취하므로군수는토목계원을 시키어도토목과(道土木課)에 진긔정황을전화로써 보고하는일변 문제에대한의견을청취한결과 도지방비예산편성(地方費豫算編成)에안악하천개수에대한경비도 편입이되어내무부장(內務部長)에게까지는 통과되엇스나지사(知事)에게까지 아직통과를시키지못하야 결정될여부를 확답치못하겟다는회전이오자 군수로부터래신구일에 내(郡守)가상도(上道)하야결정의여부도알어볼뿐아니라 극력청사로활동하야하기를주지시켜주마는답변을 듯고서야오후여섯시경에해산하얏다한다

新幹創立紀念【밀양】

신간회 밀양지회에서는 집회금지를 당한후 다섯사람외상무집행위원회에서지 금지되엇든바 지난십오일 창립삼주년 긔념식을 거행코저집행위원회를열고저하얏스나 또다시 금지를당하고비공식으로 동회원의십여인이 당일오후 다섯시부터 동회관에모이어 긔념식으로는 그녀식을거행지못하고 다만 묵복한가운대에서 다회를하고 마지막으로취사(餘興)의 여흥이잇섯다

七十餘日不雨로 牟麥枯竭地境

坡州一帶人心不安

【파주】파주(坡州)군일대에는 칠십여일간이나 눈과비가 오지안코 가물이 계속됨으로 모맥을심은밭(田)에서 몬지가 날지경으로간조하야 보리싹은 모다 말라못는지경임으로[illegible]의농촌량미에충당하는 모맥이 전멸지경임으로 파주일대의 농촌인심은극도로불안하다한다

兩勞組合同 담양로조총회

【담양】담양로동조합에서는 [illegible] 양략년회관에서 지난십사일오후팔시부터 경재병(梁梓冰)씨사회로 개최하고 회원백여명출석으로 토의사항을 원만히 맛스나 금번에 운송업자들의합동에달하야 실업로동자가 속출하나 로동조합에서는 종래수차(手車)조합과운반(運搬)조합을 금번에 합동하야가지고 속하야 실업자를 내지안키로 청하고 별서부터 운송업자들과 교섭하기로 결정하얏는데 선거된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幹事＝朴宗植、朴相石、黃河奎、金鳳云、[illegible]梓泳

▲討議＝一、組合名稱變更의件 一、任員[illegible]의件 一、規約通過의件 一、豫算案通過의件

三派로分立 策戰에沒頭

간부、비간부、중립삼파로 一日隔한合銀臨總

【대구】[illegible]어이서간부파는이에 십팔일오후 네시부터 [illegible] 자긔파의 승리만을위하야 각파모다 필사의 애쓰는 경상에서 정운용(鄭雲用)씨고삼권장합동은행(兩倉合同銀行)이분가(高杉權藏)씨방부터 논문고옷근승부를결정할임시주주총회도이제는하로人반마사변그뉘이다 하로이를 앗가워잇스목 각파의 책동은자못괴괴한바아만다고한다 시필일밤가지 등은바에의하면

幹部派　一萬五千三百餘株

非幹部派　一萬二千株

中立派　四千六百餘株

이와가티 비간부파에 우세로되

張炳遠　許智　加納　小西

山派　外山人　[illegible]人

합여論博을 제엄친 투사로작정하고 아날전과각사람에게 각한수식을 분하주어노코 이날은총회당뒤 주모석는 이질수 업습으로 일반의 결일으켜 의사진행을못하고[illegible]취를 목표로 작전계획을 협의하얏다하며 비간부파에서는이미 어대노호주가 만흥[illegible]

◇水原公普學藝會童劇의一場面

學父兄會創立【거창】

경남 거창군 가조공립보통학교(居昌加祚公普校)에서는지난음정월십오일에 아동학예회(學藝會)를개최하얏는바 오십여종의 학예와 여러학생의진보된 상황을구경하는 학부형과 일반관람객은 만흔칭찬을하고 동일오후세시경에 폐회한후 뒤를이어 학부형회(學父兄會)의필요를력설한 정한철(鄭漢哲)씨사회로 학부형총회를개최한후 좌긔각항을결의하고 오후다섯시에 폐회하얏다한다

一、發起會經過報告

一、題名及規則通過

一、任員選擧＝會長鄭漢哲

[illegible]

소도적逮捕

지난십일일오후 충남보령군웅천시(忠南保寧郡熊川市)에서 어떤수상한자가 소를[illegible] 에그행동이 수상하얏든지 웅천주재소(熊川駐在所)순사가불러 조사한결과 본적을 청양군사양면예곡리(靑陽郡[illegible]面[illegible]里)에둔임주현(任周鉉)이란자로 동리임헌철(任憲哲)의소를도적해가지고 팔랴든것이 발각되어지난십삼일에 보녕경찰서로 압송하얏다한다

平北童話大會【의주】

평북소년소녀 제일회 현상동화대회(平北少年少女第一回懸賞童話大會)를 지난십삼일 사랑의주공회당에서 차호석(車浩錫)씨의사회하에개최하얏는데 대성황으로 입상된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一等	基督少年會	朴永錫
二等	青盟義州支部少年部	李元鳳
三等	基督少年會	金伯亨
四等	基督少年會特別會員	姜仁哲
五等	弘南少年會	朴孝烈

極貧患者에 無料로治療

【안성】경긔도안성경찰서(安城警察署)에서는 관내 여러면(面)에의료기관(醫療機關)이충분치안을뿐아니라 수년동안의흉년으로 생활난이 극도에이른 농민들이 불행히 병에걸렷스나 치료할길이 업게되는환자가 매우만흔것을 구제하기위하야 여러가지로 고심한결과 도위생과(道衛生課)의민재경(公醫閔載[illegible])씨를지난사일부터 십칠일까지 각면에순회케하야 극빈환자 팔백이십삼명에게 무료로치료하얏다 한다

普校增築問題로 靈山有志大會

今秋實現키를決議

【령산】경남령산지방(慶南靈山)에는 령산계성도천삼개면(靈山桂城都泉三個面)을합하야 교육긔관으로 로동야학교(勞働夜學校)수개소를 제한외에오즉 령산공립보통학교(靈山公普校)가 한개뿐인바그나마 교사(校舍)가 부족하야 신입아동에게 입학시험을치는것은 조선전체를 통하야령산에만문제되는바이아니려니와 간신히입학을한 아동도불완전한복식교수(複式敎授)를바다오는중임으로 령산면 당국과학교당국은 교사증축 문제로군(郡)에대하야수차교섭이잇섯스나 지방민의 부담으로이 교실(敎室)二를증축한다하면 학교비에 산중으로 일천원을 보조하겟다함으로 지난십칠일정오에 령산면회의실에서 면장하지호(河[illegible]浩)씨의 사회하에면면유지(面面有志)를열고장시간간론한결과 미증유의한격로막미암아 지금은도저히 민간부담으로가 부득이금년에 증축할수업는 관계상 추가에 증축할거로 하얏다는데 신학긔(新學期)부터는[illegible]수업는 봉편오후 당지청년회관(靈山青年會館)을빌어서사용하기로하얏스며 증축예산은오천원가량이라한다

朝鐵停車場에서 海州까지汽動車

◇불원간운전코저계획중

海州交通漸益便利

【해주】해주(海州)는 황해도의수부일뿐아니라 서조선의굴지하는지방이나 이에까지 교통긔관(交通機關)이완비되지못하얏슴으로 지방발전에적지안은 지장이잇섯슴으로 일반인사는 이래수삼년간 적극적으로 활동한결과 남으로용당포(龍塘浦)의축항(築港)、동으로조철해선연장(朝鐵海線延長)등의 공사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illegible] 그완성을보게되엿스며 [illegible]

兩片먹고絶命【회양】

회양군란곡면[illegible](淮陽郡蘭谷面[illegible]) 방진덕(方鎭德)은 위경련(胃痙攣)으로신고하다가 지난십일일에 다량의아편을 먹고 중독이되어 [illegible]

精米所前通路를 地主突然遮斷

地主의무리한행동

百餘職工失職騷動

【인천】[illegible] 자는 뜻밧게 실직을하게 [illegible] 인천사회 각방면의 [illegible] 인천경찰서에서 [illegible] 지주[illegible]씨가 그와가티통로[illegible]대하야로지를한평에칠십오원에 사라고권고함으로 그정미소에서는현하시가약이십원이면사겟다고하야 피차호가가 넘우현격하야결정치못하고잇든중지난십팔일아츰돌연[illegible]씨가사람을 보내어그통로를차단하야비린것이라한다

新支紀念禁止【괴산】

충북괴산신간지회(新幹槐山支會)에서는 지난십오일에 동신간회창립삼주년 긔념식을 당지괴산청년회관에서 거행코저 긔념식준비에 분망중당지경찰서에서 돌연충주본서(忠州本署)의명령이라고 금지하얏다한다

歸農運動

—(143)—

小作問題篇 (十五)

歸里에돌아와서 ‖蒙古生‖

難境에處한成模 自顧可憐한身勢

◇그러타고집을뛰쳐나가기도못하고

이러는동안에 사실은 점점크커가서 미구에 모시사리를하고 논흥갓지아니하면 아니될 때에이르게까지되엇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누구하나 옹호이업시 오즉 리회의지도만기다리고 잇슬뿐이엇다

이러한사이에 서어잇서서 가장괴로움을 만히밧는것은 또한성모이엇다 성모는물론가정의사람이 아니엇다 이런리회가 조직되는 그날로부터 벌서 마을의사람、크게말하면 조선농촌의사람이엇다 그러나아모리 그러타할지라도 자긔아버지와 마을사람과 사이에 이러케 큰문제가 일어남을 보게될때에 이는아모리하야도 마을사람에대하야 미안하고 간망한 생각을 금할수가 업섯섯다 그리고 마을사람을 못살게구는 자긔아버지의 갈뜻이 자긔에게도 큰책임이 잇는것가티 늣겨지지아니할수가업섯섯다 어찌하여야 이문제를 잘해결케 할가하고 이는 혼자서 남모르게 어떠케만흔 괴로움을 겪는지 몰랏섯다 자긔는아즉도 그아버지의집에 부치잇서서 그아버지의밥을어더먹고 잇다 그밥은곳 모든농민、다시말하면 이마을사람의피를긁어서되지아니한것이업다 그런데자긔가 이제 날마다이러한 밥을어더먹고안저서 농민을위하야 그몸을바치면서일을한다는것은 아모리하야도 큰모순이 아니할수업는것이엇다

「모순이!큰모순이다!」하고 그염통속에서는 큰외침이 일어낫다 어찌하여야이모순을벗어날가——이것이 그마음을발하야 수업시괴로웁게하얏다 아즉도 세상의만흔경험을 겪지못하고 오즉 깨끗한리상속에서만살라 하는성모에게는 이괴로움은독약보다도더햇다 이는견딜수업섯다

성모는 아조가정과관계를 끈코나설가하고도생각하얏다 그러기만한다면 다만이괴로움만 벗어나게될뿐아니라 다사이체보다도 훨신더자유로웁게、그리고 훨신더철저하게일을하야 갈수도잇슬것가티 생각되엇섯다 그러나그것은과연여간어려운일이아니엇다 벌거벗은몸으로집을나선다면 나서는그날부터라도 자긔는금방굶어죽을뜻 어려웁게되엇섯다 자긔는근육로동을할힘도 갓지못하얏다 월급장이노릇을할만한 재조도갓지 못하얏다 남에게부치어서밥을 어더먹고잇슬만한비위도 업다 자긔주머니를 털어서남을주기는누구보다도가장조하 하지마는 남에게손을벌려 어더먹기는죽어라하고못하는 성격이엇다 이러한자긔로서 어찌 그가정을탈각하고 나설수 잇슬가 이는 [illegible]리회의모든일에 남보다뛰어나게용감하고 내어서 활동하얏다 그러나 그것은밥과옷의보장(保障)이잇는 때에만이엇다 만일이것이업다하면 이는아모것도못하고 굶을것이라고밧게 생각되지아니하얏섯다 뜨뜻한가정에서귀공자가티길리나서 아즉도청빈한세상맛을맛보지못한이로서는 이것은당연한 것저질바이엇다 이것이성모가 농민의피로써된그아버지의 밥을어더먹으면서도 아즉그가정을뛰어나지못하고 날마다괴로움을밧고잇는중요한원인이되는것이엇다。

그뿐이아니엇다 이는리상에 열렬한만큼 정적방면에서도또한그만큼열렬치 아니치못하얏다 뜨뜻한사랑——아니다 뜨거운사랑이 아니면 이세상을살아갈수가업다할만큼 이는그러케도정적(情的)으로된 사람이엇다 이러한사람임으로 왼생명을던저서사랑하야 주는그어머니나 또는 그안해를버리고나서기는 과연여간어려운일이아니엇다 이중에서도특히 오즉 하나밧게업는아들이라하야 마조대하면언제이나 웃는얼굴로 써들여다보아주고 나가면마음을놋치못하야 근심하며 그리고또자긔와 그아버지와의 사이에서서 두편을서로조화(調和)시키고조돌이업게하기위하야 모든애를다태우고 잇는그어머니의사랑은 이로서는참아 차고 떨어날수업는것이엇다 사랑이라하면 남녀두사람이주고밧는달콤한「키쓰」와「엠부레이쓰」로밧게는 더해석할줄몰으는현대의청년으로서 어떠케그어머니의사랑을 떠나지못하야 그에못듯러잇다는것은 넘우나 우습고이상한놈이라 할수도잇는것이엇다

中間不當搾取로 借地料高率

池田所有의仁川松峴土地

七百餘戶가減下運動

【인천】인천부송림리송현리(仁川府松林里松峴里)일대에잇는 대구(大邱)지전(池田)의 소유로서 조선척식주식회사(朝鮮拓殖株式會社)에서 관리하는토지의 차지인(借地人)칠백여호는 일제히 지료감하기성회(地料減下期成會)를조직하고 지료감하운동을 개시하얏다는데 그차지료의 불온당한것을 부르지저 불온하다는 리유를들어보면 그토지 소유자인 지전(池田)으로말하면 실상극히 커렴한료금으로 대여(貸與)하야 그토지수만평의일년지료가 일천오백원에넘지못한다는데 그소유자의 위탁을바다서 마치 사음(舍音)과가티 중간에서 그지료를수금하는자의 자의로 고률(高率)의 지료를청하야 수금하야 일년간에칠팔천원의거액을 중간에서 부당히착취하는까닭으로결국차지인의부담은 심히비싸게 된것이라하며 그토지의 중간수금을하는사람의리익이 그와가티만흠으로 그토지사음 쟁탈운동이 격렬하야자간에 그사음운동자와 그토지관리인조선척식회사사이에 여러가지소문도잇거니와 저번에 인천룡강정(龍岡町)사는 김모(金某)가 그토지사음을획득한바 다른사람이 연고업시하는사음을획득하느라고 자연그 지주에 대한료금을 전사음보다 늘다소더주고 사음을획득하얏는다 지주에게 지료더준것을 구실삼아 이번에각차지인에 대하야 지료를더올리려고 함으로 칠백여호의차지인은 세상불경긔로각처에서지료감하운동이속출하는이때에 중간착취를하기위하야 지료를더올리려고 한다는것은온당치못한것이라하야 지료감하운동을 시작한것이라한다

坐地料增加하고 不應한다고老人毆打

六十一戶가地主排斥

【안성】안성군공도면불당리(安城郡孔道面佛堂里)에사는 김용삼(金龍三)김귀봉(金龜鳳)등두형제는그동리지영진(池泳集)외여러사람에게려人도조(作賭料)를 종래보다 삼배식증가하야 렁구하다가 이에응치안는다는리유로 당시칠십이세되는 지영진을구타하얏슴으로 그동리 구장박성무(區長朴性武)외 륙십일호가 결속하야(一)김용삼형제와 교제를단절할일(二)이두사람에게는 어떠한상품(?)도 사지말일(三)이두사람의 토지를 소작하지말일(四)이상의결의를 위반하는자에게는 위약금 십원식을 바들일등을 결의하고 각호주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음정월초하로人날부터 위동리에서 이계약을 실행하는바 그동안에 위약자세사람이 생겻슴으로 위약금으로 박성보(朴性寶)외두사람에게서 바든일이 잇섯슴으로 지난십칠일그곳경찰서에서 관계자를호출하야 설유방송하얏다는데 빼처밧는김모는 「부득이한사정으로 고소송비용까지만허볼게된관계로하는수업시 려人도조를올린것인데 그와가티배척을당하게되엇습니다」운운하얏다한다

步哨兵욕하고 三青年監獄行

【대구】대구봉산정(鳳山町)사백륙십사번지리팔암(李八岩)외세명은 술이취하야 지난십삼일오전한시산신분경팔십련대(八十聯隊)뒤人문에섯는보초병(步哨兵)등칭(櫻井)이등졸에게 보초는어데서잇느냐는둥의 욕설을하야 보초병은 내종에 총색리를 저누어닭아난일로 대구헌병분대에 검거되어 취조후십오일검사국으로넘기엇다한다

新文大會禁止【전주】

신간전주(全州)지회에서는지난십칠일에 제삼회 정긔대회를개최코저 준비에 분망중집회계를 전주경찰서에제출한바 아모런 리유도업시금지하얏다는데동지회에서는선후책을강구중이라한다

蔚山勞組懇談【울산】

울산로동조합(蔚山勞働組合)에서는 지난이월십사일오후한시부터울산청년회관에서 간친회를 개최하얏는데 조합원의 다수한출석으로 대성황으로 회원의소감담과 여흥이잇섯는데간친회에동정의연은 압에와갓다한다

金二十圓 [illegible]　金[illegible] 崔五斗　[illegible]

[illegible]

金解禁講演會【군산】

군우회(群友會)에서는 금십구일오후칠시부터 군산유아원(群山幼兒園)에서는 다음과가튼연제를가지고 명사를청하야 강연회를개최한다는데 주로금년에대한것이엇닭에 상당히 성황을일우리라한다

一、金解禁에對하야

二、生活改善과農村敎育

三、商街에對하야

南市에小火【남시】

지난십육일오전네시경에 평북룡천군남시(龍川郡南市)에서 옷이사백개홍(白介洪)의집대문간에서불이일어나화광이충천하든중남시소방조와 극력활동하야 진화에노력한바 약한시간후에야 겨우진화되엇다는바손해는아즉알수업스며불이일어난원인이도조사중이다

馬山靑年들釋放【마산】

지난십삼일아츰에검거되엇든김우홍(金又弘)군은 그날저녁에석방되엇스며 다른청년들도 곤부무사석방되엇다한다

會合

◎龍水佛敎少年會定總　去十六日當地佛敎布敎堂에서開催

◎天道敎內修團川部臨時大會　去十二日同敎堂에서開催

◎天道敎靑年黨龍川部臨時大會　去十二日同會館에서開催

◎三千浦靑盟準備委員會　去十五日同會館에서開催하고十八日鉢山公園에서創立大會召集

◎岸達靑年商會定總　去十二日小林公普校에서開催

◎岸達部小林面燈山洞夜學講習所運動會　去十二日開催

消息

◆曹秉模氏(朝鮮商業銀行全州支店長代理)는赴任人事次去十八日本報全州支局來訪

伸案鼓

問　홍원(洪原)에와본도명극장(東明劇場)때는표만팔고흥행도안든드니 밤중에 달아낫스니 경찰은 그런것좀 못살펴주오。(洪原觀客)

答　북청(北靑)신창(新昌)동지로조회중입니다 어떠케하든지손해안보도록하지오 (洪原警察署長)

[illegible]

地方通信

興學一

◇敎育과衛生에協合한[illegible]우리農村에도內容은如何間 外觀으로는 比較的興趣的한氣分이 濃厚한것갓다

◇오즉남달리二重過重의苦悶에 엇이나하나우리의白衣族의共同으로 慶賀하는날이잇슴만은千幸

◇그런데遊戲이나 國樂이나 하는것도그分數를 넘치면못쓰는法이야

昭和五年二月十三日　文川警察署長●

東亞日報社長　貴下

新聞記事取消方의件

二月九日附 貴紙揭載記事中에 思想激化의種子라는題下에 文川共同組合을當署에서封鎖命令한것가티揭載하얏스나 全然事實無根임으로 至急取消하야주심을 바랍니다

各地方正初놀이

◇始興【시흥】본보 시흥지국에서는 지난십오일 오후여섯시부터 [illegible]　梁律漢

◇北新【구장】평북녕변군북신현면가좌동(寧邊郡北新峴面佳佐洞)에서는 당지가좌농민사(佳佐農民社)주최로거십삼일에 농민사정원내(庭園內)에서척사대회를개최하얏는데 이어이십사의 선수가 임장하야 적백량편으로 갈려서 진행하얏고 번외척사(番外擲柶)까지잇서매 회는 일층흥미를 끌게하얏다

◇會寧【회녕】본보 회녕지국주최의 척사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이월일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칠십여명의회원이 참가중에서 개최하야 개인권과 홍백권으로 유쾌히 척사시합을마치고 신년소감과 여흥이잇서서 흥미진진한중에 동팔두시에 마치엇다

◇龜浦【귀포】경남귀포(慶南龜浦)청년회에서는 재래의귀포경남각희대회(角戲大會)와주최(主催)와 본보귀포지국후원하에제륙회경남각희대회를 당지 시장변에서 지난이월십오일부터 삼일간 개최(開催)하기로하얏든바지방여러가지 형편에의하야 하로 동안을연긔하야 십륙일오후신시경에 이산이해의 대성황리에서종막하얏다

大地의傳

尹白南 作　李象範 畫

(35)

五、묵은日記冊 (一)

란영(蘭英)이가 벌가를노쿼보낸뒤건은 그새벽으로 마을의 밧으로서 여럿의귀에 들더가나 그들은 애를쓰고 삼아온 벗거리를 허무하게 노친것이분하기는하면서도 란영의 대담한행동에 놀랏다 그중에도 무룡은 남과는 별다른의미로 란영의용기에 탄복햇다

그일이잇슨지 얼마뒤 며츨을두고 몹시 무더웁든뒤 상쾌한소낙비가쏘다저서 더위를 씻어버린날 [illegible]예엿다

무룡은 시원한 바람을쐬려하서 혼자뒷산 [illegible]에잇는 매바위(?)그늘로 올라갓다

[illegible] 잡고 흐트러지며리털 시원한바람에 씻어버리려는 생각이엇다 [illegible] 엄는 금병에 식우를 패하다시히하고 압흘이엇다 그것이 오늘은 아츰부터 [illegible] 나리고 찻지안튼 음식도차젓다

그래서 무룡은 미음을쑤어다가 들이고나서 간호에시달린몸을 쉬울차로산에오른것이엇다

소낙비 지내간뒤의 만산은 유록이 새로왓고 멀리 안하에 전개되어잇는 산과산사이의 좁으마한벌판에 군데군데고인물은 나려쪼는 태양빗테 거울가티 반사하고잇다

일상보는산천이건마는 오래人동안 초막속에 들어잇든 눈에는 모든것이 새롭게 보이엇다

머나먼 지평선(地平線)에는 흰구름이 피어오르는 솜가티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움즉이는듯마는듯 천천히 그형상을변하면서 흘러간다

아아 저구름 피어오르는 저편에는 내가 일즉이 보지못한 새천지가 나를기다리고잇슬것이다. 그리운 고국 조선이 나를기다리고 잇슬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나라 나는 그리로 하로라도 일즉이 돌아가야하겟다 그래서 새로운천지에서 내힘껏의활동을 해보아야하겟다

무룡은 과거에업든 어머니의얼굴을 공중에그려보앗다 그리고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나즈막히 두어번이나 허공을대하고불러보앗다

무룡은 바위에등을기대고 비스듬이누어서 이러한공상에 빠저버리고잇섯다

이때ㅣ 문득솔방울한개가 공중을날아와서 무룡의 뒤통수를 마치고떨어젓다 무룡은 손으로 뒤통수를만지며 뒤를돌아다보앗다

「허허허 거긔서 뭘하고계서요」

뜻밧게 거긔에는 홍련 넘칠듯한 웃음을 만면에 실은 란영이 고개를 가웃둥하고서잇다

무룡은 이편으로 몸을돌리면서

「바람을 좀쏘이려왓서요 그런데 란영이는 왜왓소」

「나요? 나두 바람좀쏘이려왓지오」

하면서 그는 무룡이잇는 바위그늘로 걸어와서 수건으로모래를털고 나란히 걸어안젓다

「지금 어르신네자실약이 다되엇다고하길래 내가까지 가지고가서 자시게햇지요 그러구나서 아마 바람을 쏘이려나가나보다고하시길래 뒤따러오섯슬뜻해서 또차왓지오」

「아이참 날마두 란영에게 폐를끼처서 안됏소」

「뭐……뭘가요」

란영은 별안간 벌떡 일어서서 하옥이나 돌아서며 고개를 비틀고 엇개를두어번 흔든다

「아니 별안간 왜이러우」

「그러치오 나가튼사람에게면 치레로 서어한인사나해여드리면 그만이겟지오 [illegible] 그러치안해요……때라는거다 무엇이야요」

「허허허 그것에 노햇구려 그럼 내가잘못햇소 난고마워서 나간말이지오 자아 이리로와서안저요」

「가만두어요 내가안지께 그런데 참 놀라섯지오 앗가 솔방울에마저서」

하고 무룡은 란영의옷옷자락[illegible]하며 란영은 무룡처럼 다시안젓다

「하하하 지금까지 눈를대고잇소 벌서 식엇지——그런데요」

「되여」

새는 두목의과색이 [illegible]

무룡은 한팔을 란영의[illegible] 놀려서 바위를짚고 좀우다아안꾸며 물엇다

朝鮮歷史講話【82】

崔南善撰

第三十八章 日本과의關係

一二二、江華의 修好條規

日本이德川氏의末에歐洲로더불어通商關係를맺은뒤로우리가그心事를의심하야交好ㅣ산뎻드니高宗五年에그政權이王室로돌아가매新政府ㅣ그事由를통고하고다시修好하기를求하는데그文字ㅣ前日과가티恭遜치아니한으로當時日本에附하야外交를管掌하든東萊訓導安東晙이그뿔을밧지아니하야其後數年에크게日本의感情을傷하얏스나大院君이執權한동안交通이러지지아니하얏스며十年에大院君이失勢하고閔氏ㅣ當路하매外交의方針이차차變하드니十二年乙亥에日本軍艦雲揚號ㅣ江華東南의蘭芝島에投錨하고漢江을엿보거늘우리砲臺ㅣ이것을砲擊하야衝突이생기니이듬해丙子正月에日本이軍艦二隻運送船三隻으로써全權大臣黑田淸隆、副官井上馨等을보내어[illegible]하야修好條約을맺으려하거늘 우리政府ㅣ接見大臣申櫶、副官尹滋承을보내어談判할새意見이잘合하지아니하다가右議政朴珪壽와譯官吳慶錫이世界大勢上通商修交의不得已함을力主하야 二月初二日(新二月二十六日)에江華에서兩國의修好條規가成立하니 이는우리가外國으로더불어새로約條를締結한始初이다。

이條規는全文이十二款인데먼저朝鮮이自主國으로日本國과平等權을가진것을밝히고 다음에使節을交換하며 釜山外에다시二港을열기로한것이다 이結果로同年四月에禮曹參判金綺秀가修信使로日本에報聘하고 十六年己卯에日本外務大丞花房義質이代理公使로 國書를가지고와서 西門外의淸水館(天然亭)에留하면서 먼저釜山의開港을定하고 이듬해에는元山을開港하고 二十年癸未一月에仁川을開港하얏다。

十八年辛巳四月에趙準永、朴定陽、沈相學、趙秉稷、閔種默、魚允中、嚴世永、姜文馨、洪英植、李元會、李𨯶永等을보내어 紳士로日本을遊覽하고돌아오케하니이네가開化黨이란이름을둣고이듬해壬午年正月에統理機務衙門을設置하야거긔同文、軍務、通商、利用、典選、律例、監工等七司를附設하매 이네가그要任을차지하얏스며 이듬달에는兵制를改革하고새로壯禦、武衛의二營을두니日本中尉堀本禮造를延聘하야新式의敎練을시키고이를別技軍이라하며 다시搢紳子弟의年少聰俊한이百餘人을뽑아서이를士官生徒라하야 技藝를下都監에서배우게하얏다。

一二三、米國과의通商條約

元來朝鮮은仁祖以來로淸國의年號를쓰고歲貢을보내는關係에잇스되 一切의政務는自由獨斷으로行하야 兩者의關係가明瞭치못하드니 朝鮮에서高宗初에天主敎虐殺、「쉬맨」號事件等이나서佛、米兩國이交涉의對手가누구일것을淸政府에물으매 淸國이宣戰、媾和의機能이 朝鮮의 自由에잇슴을말하며 뒤에日本에對하야도 이러한聲明을하야 江華條約의第一條에朝鮮의自主國임을 言明하게됨이러니 이로부터日本勢力이朝鮮에퍼질兆朕이생기매 淸國이前日의態度를變하야朝鮮을各國의均勢下에두려하야 그外交當局이든李鴻章이朝鮮을勸하야歐米로더불어通商케하고 그第一着으로 米國과 修交通商條約이 十九年(約五十年前)壬午四月初六日(西曆一八八二年五月廿二日)에成立하니 이것이歐米로더불어條約한始初이다。

新春詩壇槪評(九)

鄭蘆風

「妄想」은敍事詩이다 海剛은어느편이냐하면 于今外지나흔詩篇으로보면 敍事的傾向을띄인詩篇이 짜만탓다 巴人에比하야沈痛한맛은업다 그러나보담流暢하다 貧寒한勞役軍의妻 一片丹心으로그家庭을 男便을爲해바치는妻의責여운勞働욕한態度를노래하얏다 사나회는일터에서 妻는집에서勞力에從事하는것은每一般이지만 女子는男子의慰安의對象 不平의火葬터 아이의養育 炊爨等한辭며만흔作用을하는것으로表現되엇다 全篇이感激으로熱情未來를사모하는浪漫的憧憬 敬虔한獻禮로찻다 우리는一月詩篇中力作의하나로써許한다 그러나이詩의題材가 題材인만큼 그大衆으로에動力 獲得力의熱度는 그러흠수가업는것이지마는 어쩌하야 妻로하야금이에에치게하는고? 感謝의敬虔한態度는 取할만하나 亦是一種의自己享樂對象으로 取扱하고만것은매우섭섭한일이다 좀더그妻에게努力해줄必要가업섯슬가 다만淺薄으로서가아니다 同志에까지이르게하고자로ㅣ그러한態度가보엿든들 그리하야그적은「피오날」에外지이러한氣脈이抽象的으로가아니다 좀더具象的으로—만흔暗示로서 表現하라힘썻든들 이作品은보담大衆性을獲得할수잇섯슬것이다 作者의意圖에잇서 여가에着想하지못한것은 赤是作者의意識이個人主義的傾向에서完全히解脫하지못한곳으로부터일가? 作者스스로省察하기를勸하야둔다 우리가制作態度에잇서 全體性的把握을힘써야한다는것은 辨證法的思考方法을把握한意識者에잇서서도 그實踐的經驗을거쳐서 거듭거듭省察하기를게을리하야서는아니된다는것을 이저서는아니된다

「新進[illegible]詩篇」

李燦君의「아춤의어느시악씨에게」가比較的좋낫다 「오리지날의高貴한粉香을휘날리며」와가튼 幼稚한句節이업는것이아니나 새時代의詩人으로서새意識을把握하고 씩씩개잇시活躍하자는建設的意欲이보이는點을取하는것이다 그러나연장으로서맘솜씨가형신讓讓되어야할것은勿論 그詩形에잇서 統制力과調和함으로조차 敎慢하게보임을아니라 行節을亂切하야[illegible]호러는點이보인다 詩道에精進하가를付託하야둔다

柳致詠君의「先驅」 柳盟卿君外의「先驅」等은 잣을모업는作品들이다 主題부터「先驅」이니 무엇을며바랄것마는 孫君의詩에서「悔恨의눈물」을 柳君의詩에서 「외롭은心思」「萬壽山의꿈」 等을 發見하지안흔것은아니나 新進詩人으로서는 적어도우리의戰取하여야할性의意識—無産階級的民族意識을把握하고 큰직한氣槪로서 새脈史創造의意欲을 힘을보여주지안하서는아니될것이다 已巳年에잇서우리가 柳盟卿君을推한것은 「文藝公論」에發表된「化學實驗室」에서 아려한創造的意欲과힘을보아내엇다닭이엇다 그後柳君의作品에잇서 이러한詩的感을 다시어며볼수업는것은 여간섭섭한일이아니다 이作品들은詩形에잇서서는 적은대로整齊되엇고 말솜시도比較的조라 그리고眞摯味도李燦君의『그러나쉬—』와가튼 明瞭하정대는것에比하야서는 좀반게낫다 그럼에도不拘하고우리는 李燦君에게將來를期望케되다

安柄龍君의「出發」은 「사랑하는이악시 젊은朝鮮의누님이여 이제 「새해、새날찻아춤이오니 당신을의매인因襲과愛着을헐처버리고 街頭로 街頭의行列로 行列의先頭로 뛰어나오소서」 여기에詩的意圖가잇다 부[illegible]態度는取할點이잇다 自然의寂寞에서허매는詩想에比하야서는 훨신솟쳐보아야할것은勿論이다 그러나넘으나感傷的이다 「因習」「街頭」만에그처서는아니되며 「어쩌한因習」「어쩌한街頭로」 이러한問題를 社會的觀點을일흠이업시 그現實態에서지금코들어가서잡어내야한다 그러하여야淺薄한 無彈力한全篇의氣槪를 救할수가잇슬것이다 우리는安君에게 意識戰取와强烈한男性의建設欲을 發見하얏스면한다

新童話運動을爲한

童話의敎育的考察

—作家와評家諸氏에게—

(三)

金完東

二、幼年期와童話

이時期는兒童의遊戲時代이며 硏究的精神이發生되는時代이다 그리고兒童期에잇서서 가장變化가顯著한時期이다 前半期(四歲로부터六七歲까지)의心理狀態는想像力이非常히發達하는때인데그것이 너무도 幻想的이며空想的이되어서 事實이아닌것도事實이것처럼作覺하며 업는것도잇는것가티한다 過去의童話의內容을보면 거의全部가이兒童의幻想과空想을主로하야그것을奇怪하게助長시켜와것다 또이時期는幽靈期에達하게되어道德的意識을가지게되며 知慾이發作하며 愛情이豐富하야잔다 그리하야 他人의物作을할부로取하려고도안케되며 모든事物에對할때마다『무엇?』『웨?』하고뭇기를조하한다 그러한다사운情景을볼때에는 直覺的으로愛情에서흐르는눈물을禁치못한다 故로이때에는 道德的意慾을助長케하며 人情味가豊富하고 知慾을助長시킬童話가必要한것이다 우리는過去의幻想的이엇고 空想的이엇든그것을速히淸算하고 敎育的建實한理論下에 科學的으로 童話의新運動을期하자!

此期後半期(七歲로부터十歲外지)의兒童은身體가顯著하게發達하야가며 想像力이非常하게만하서 [illegible]을始作하게되는때다 그리하야 敎育作用에依하야 幻想과空想이多少사라저가며 天然的으로[illegible]한다 그리고 [illegible]과推理的判斷이[illegible]된다 故로此期의現代兒童은그知覺의發達이얼마나 飛躍的임을알수가잇다 그리하야 原始的産物인幻想的空想的童話에對하야서는 科學的疑訝心이發生하기始作하야 少年期에드러감을말하 如此한童話에는 絶對로魔醉되지안는다 一時的으로魔醉되기는하얏다해도 生活上큰影響은맛지안흘것이다 故로此時代에는童話의全內容을通하야 善惡에對한批判的態度를取케함이 適當할것이다 그리고敎育的學習態度를바로잡아줄만한것이 또한조흘것이다

東亞文壇
◇學藝部選考◇

貧者의노래

金在哲

—一—

땅을팔고떠나간 고놈의신세
이야 오죽하나만
그래도매어달린 요놈의간장
에는 눈물어려네

× × ×

주저안진몸밧아 흐러는자최
만이 남어잇는데
쇠어지는밥알이 오늘에도이
상엔 보이지안네

× × ×

헤새비오양간에 썩어지는올
다리 찬바람이니
배고파죽어가는 지금에이한
천을 어쩌보내나

× × ×

에헤야—데헤야 이놈의내팔
자도 타고낫스니
이어차—이어차 헌길만길이
꿋에 욹이나와세

—二—

딸자식파러먹는 고놈의가슴
이야 미어진다만
굶어죽는이판에 어버이의사
랑도 별수업다네

× × ×

거츠른이거리에 ××의벽돌
집만 놉어가는데
식어가는그힘은 가난한집은
이의 서름이라네

× × ×

한해두해쌉으며 피눈물에짜
어온 이살림사리
배곱파소리치는 자식놈새기
들만 웨이려만하

× × ×

에헤야—데헤야 이놈의내팔
자도 타고낫스니
이어차—이어차 헌길만길이
꿋에 흙이나와세

(1929·12·31)

李朝篇

史上의로만스

義賊朴長脚(一)

李殷相述
李靑田畵

그의성(姓)이 박가(朴)인줄은알면서도 그의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사람은 아무도업섯다 다만그의다리가 엄청나게 길으로하야 사람들이그를부르되 박장각(朴長脚)이라고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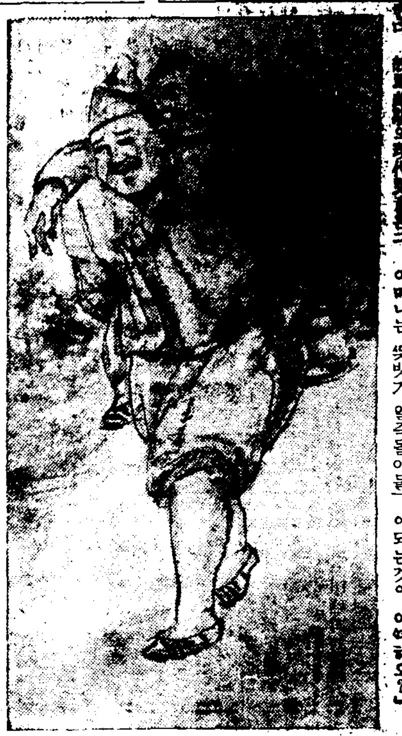
박장각은 아주총각이엇다 길人가에다 조고마케 막을치고 홀어머니와 가티거하며 날마다 부즈런히 로력하야 겨우그두목숨을 이어갓든것이다

박장각은 몸이크고 얼굴이헌상스럽우에 귀운조차 보통사람의 몃갑절이나서엇다

어느날 일터에서 어떠한자와 크게다투다가 그엇센 주먹으로 때려 그자가얌에 쓸어저죽게되니 박장각은 곳집으로몰아왓다

『어쩌오늘은 이러케일즉돌아오느냐』

어머니는 뜻밧게 일즉돌아들어오는 아들에게 이러케말하고 그얼굴을보니 장각의얼굴은 흙빗이엇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낫습니다 큰일이!』

『웨 애야 무에어써됏니?』

어머니는장각을붓들며놀란다

『어머니! 어쩌다가 케가사람을하나 죽엿습니다』

『응? 사람을죽엿서? 아이고 이자식아 그무슨말이냐』

『네 어떠한자 하나이 하도 이불상한일꾼들에게 못되게굴어 눈에거슬리기에 참다참다못하야 한두마듸말다툼질을하다가 몃주먹 안노핫는데 그만그러케되엇습니다 죽일라고까지는 생각지도 안핫든것입니다마는……』

하고 박장각은다시한번 소름을친다

『이몹슬자식아 어쩌하다가그런짓을해노핫느냐? 응? 살인이라니!』

『그럼이일을 어쩌면 조탄말고?』

어머니는 눈물을지우며 장각을붓잡고편다

『어머니 이미그러케된다음에야생각한들 무엇합니까 어쩌지금곳 달아나는수밧게 어쩌할수업지요 자! 어머니 일어나서요 여긔서 떠안저잇슬수는업스니……』

박장각은 어머니를 등에업고 산속으로 도망하얏다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조고마케 또막하나를얽어매고 나무하야 불을때고 즘생잡아 공양하며 박장각은홀어머니와함께그날그날을지냇다

어느날 그곳으로 도적의떼들이 밀려왓다 그러나 도적들도 그사는정황을보니 가여울뿐이요 밥한그릇조차 쌔어먹을것이라고는업슬것가탓다 뿐만아니라 박장각의얼굴과 체픔을보고는 어느한놈도 압나서서중얼거리지를못하얏다

『당신들은 무엇하는사람들이기에 우리집을차저왓소』

이러케뭇는 박장각의말을 듯고야 도적들중의한놈이 겨우입을열엇다

『우리는 숭징업시말하면 도적들이오 한데로형도 이러한산중에서 이따케고생스러히살지말고 우리와 한당(黨)이되는것이 어떠하오?』

『아니오 나는풀뿌리를먹음으로써 족하오 뿐만아니라 내게는 늙으신 어머님이게시니 그리할수는업소』

『우리와가티가기만하면 로형의어머니께서도지금보다는더 평안히게실수가잇슬것이오』

『하지만 어머니께서이곳저곳 반이해다니시기를 즐기시지안흐니 더말하지마시오』

그러나 도적들은 장각의위인이 비사룸지안흔것을 생각하고 당속에들어와주기를 네번다섯번 간청하얏다

『이제당신들이 그만콤까지간청하니 그러면 어머님께서세상을떠나신뒤에는 당신네들에게 몸을허락하겟소 그래도 늣지는안흘것이니!』

박장각도 드듸어 그만콤은언약해주엇다 도적들도 그가뭇내 어머님을뫼시고저하는 그지성스러운자심에 감복이되어 저이들이 가지고잇든물건들속에서 비단과돈을내어 장각에게 례물로주엇다

그러나 박장각은 주는물건을 밀치며

『내게는이런물건이 쓸데가업소 그리고또내마음이 이런물건을밧고저아니하오 이것으 당신들이 도로가저가시오』

하고 꾸짖듯이하며 그것을밧지아니하얏다 도적들은할수업시 물건을도로 저이들의짐속에 집어너코 뒷날을긔약한채 그곳을떠나갓다

新刊紹介

▲世界美術全集第四卷(廿八回配本)東京市麴町區下六番町一〇 平凡社發行振替東京二九六三九番

▲經學院雜誌第三十號定價非賣品京城府崇三洞五三 經學院發行

▲朝鮮經濟雜誌一月號定價五十錢京城長谷川町京城商業會議所發行

▲昭和之朝鮮創刊號定價五十錢東京市赤阪區靑山南町五ノ四五 昭和之朝鮮社發行

▲新進傑作小說全集第十四卷(十一回配行)東京市麴町區下六番町一〇 平凡社發行振替東京二九六三九番

急緊處分 殘本整理 大亂賣
金融逼迫으로破天荒의廉價
世界文學集十冊에
단壹圓五拾錢에提供

底止할바를모르는殺人的大不景氣로圓本全集의恐慌時代가되어出版業者의破産續出하는只今 本社는有名한世界文學一冊을겨우拾五錢에處分放賣함。空前의廉價提供이나好機를勿逸하라

●●●二冊分賣는안합니다。반듯이十冊써를注文함事。(送料廿五錢) 投賣品故로注文前金振替나小爲替送金事(切手代用一割增) 不得已한事情으로代金引換注文者는金貳圓八十八錢에送呈

殘品僅少‖只今곳‖速者勝‖

第一卷 레·미제라블 全一冊 유고原作 樋爪政成譯
「레·미제라블」이라고하느니보다도「쟌 빨쟌」의니름으로써有名하다。擴大한人類愛의精神이『펜』尖에化成된大傑作이다……

●第二卷 復活 全一冊 톨스토이原作 中村[illegible]譯
「카쥬사」사랑스럽다의노래와함께全國에퍼지어(貴族과醜業婦)의魂의歷史的內容은널리有名한大文豪의代表的名作이다……

●第三卷 罪와罰 全一冊 도스토에후스키原作 大野好郞譯
死刑의宣告、銃口刑一髮의特赦、西伯利亞의流刑、終生의貧苦의數奇를極한作者半生의波瀾이라고도할만한深刻한名小說

●第四卷 椿姬 全一冊 모쌋산原作 秋山哲夫譯
고운女俳의放縱한戀愛生活의記錄으로純潔가머지안하悲哀의運命……

●第五卷 女의一生 全一冊 모쌋산原作 秋山哲夫譯
命을마치는女主人公의可憐純眞한一生、사람의눈물을자아내다 男女愛慾의罪를諧謔으로解剖하야 性慾生活을거리낌바업시仔細히描寫한「모쌋산」代表作의하나로不朽의名作이다……

●第六卷 父와子 全一冊 쓰르게네프原作 大野好郞譯
深刻한技巧、甘美한戀愛와近代的思想、實로「쓰르게네프」의好評을博한다……

●第七卷 女優나나 全一冊 에밀쏠라原作 太宰衛門譯
色情을描寫한有名한小說로最近映畫로映寫되어大好評을博한다……

●第八卷 世界傑作映畫集 北川生平編
[illegible]

●第九卷 死의勝利 全一冊 단누치오原作 太宰衛門譯
[illegible]

●第十卷 資本論 全一冊 맑스原作 小木曾[illegible]郞譯
本書는資本社會에對한批判이요、크게읽지안코는近[illegible]

●本會特賣世界文學集은新潮社出版全集과는內容相異同一視말라
●●本社의이全集特賣는至急處分品인故로內容見本은進呈치안흠
●本社를信用하고可及的振替로申込하시압(此新聞名記入事)
●申込所 東京市四谷區本村町三 振替東京七七三九六 東京圖書協會殘本部

日本文學의代表作集!!
大放賣 六冊一組에단壹圓(小包送料四拾錢)
德富蘆花傑作集● 不如歸、自然과人生、蚯蚓의[illegible]
尾崎紅葉傑作集● 金色夜叉、多情多恨、二人妻[illegible]
夏目漱石傑作集● 나는고양이다、草枕、其他[illegible]
大町桂月傑作集● 紀行、感想、評論、論說、詩歌、其他
現代名作小說集● 數多한名氏의作品中、가장有名한長篇大作[illegible]
現代名作小說集● 雜誌婦女界에連載되어天下士女를울린長篇「愛人」[illegible]
送金은可及的振替口座、小爲替로、代金引換은六冊에金貳圓四拾錢
特典 世界文學、六大文豪全部前金注文은送料本會負擔貳圓四拾錢 ●二種全部代金引換은金貳圓九十五錢에送
●東京圖書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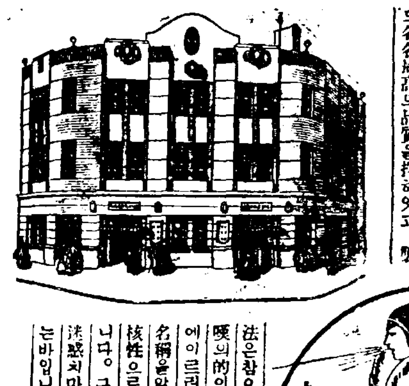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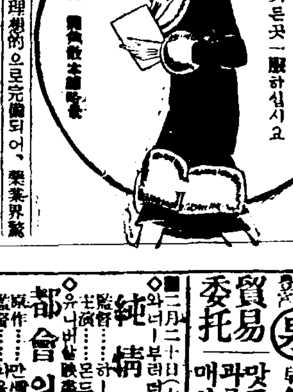
高橋博士의
美味胃腸藥
ゴルフ 고루후
定價 30錢 50錢 1圓 3圓 5圓
食慾不振、消化不良、過食過飲、胃弱의
東京室町 寧居製藥株式會社

生徒募集 下關 關西計理學校
商業科 計理科 學制改革 資格向上 校舍增築
市町小中學卒業者入學許可(規則切手入) 短期卒業後就職紹介

登錄商標

기침 천식
龍角散은어째好評인가?

世上에鎭咳藥이만히잇습니다。그러나龍角散은、오랫동안一店一藥의寶을保全하야、이藥하나에모든硏究를바치어온것으로、臨床醫學上의實驗은勿論、十數種의藥質을選擇할때에도各各最高의品質을擇하얏고、製法은참으로理想的으로完備되어、藥業界驚嘆의的이되어잇는것입니다。향을며그藥効에이르러서는이미定評이잇는바로龍角散의名稱을알만한사람으로、咳嗽를肺炎이나結核性으로變하게할사람은斷然히업슬줄로압니다。그럼으로感冒咳喘息에걸리거든반듯이恍惑치마시고龍角散을撰定하실것을勸告하는바입니다。



上圖 龍角散本舖社屋
外出中의咽喉와加減이異常하고、기침이죽을이라도나거든곳一服하십시요

龍角散

(龍角散을꼭服用할사람들)
一、담으로恒常골골알른사람
二、천식으로헐덕헐덕숨차하는사람
三、기침이頻出하야잠잘못자는사람
四、流行感冒로나는기침하는사람
五、肺病으로늘無力한기침하는사람
六、담에서臭氣나고때때피석기는사람
七、音聲이쉬고또는咽喉압흔사람
八、百日咳또는紅疫기침하는小兒
九、其他呼吸器疾患의모든기침各症
아모리頑性이라도約一二週間繼續하야服用하면그効果顯著합니다。

龍角散의三大特長 藥·質·製·法·藥·効 臨床實驗 最高名藥

定價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藥劑師 藤井得三郞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illegible]番
▽全國各藥店에有함△
僞造品이잇스니藤井의名義에注意하시압

有利事業 錦工堂
專賣特許自動配繩器付 製繩機 大阪市此花區 石橋機器製作所
奉天西塔大街 朝鮮果實公司 貿易委託 맛조흔조선실과를갑싸게도매산매합니다
純情無敵 6
都會의哀愁 9
戀의走馬燈 9
朝鮮劇場 仁寺洞(電話光二八一番)
아리랑 그後의이야기(後篇) 14
귀리데이街 9
團成社
키톤大學生 7
램페스트 8
다그라스大王 8
優美館

少年小說

義俠少年「인호」(二)

利原　金哲洙

세월은 흘러가서 인호도어느듯인제는 열세살을 먹엇습니다 그동안 늙은어머니는 세상을떠나고 한분계시든 누님조차시집을가고보니 인호는이넓은 세상에 외지가지업는 외로운신세가되고말앗습니다

그러하야 생각다못하야 이고요한 고향산천을떠나 좀더번화한곳으로 살길을차저 길을떠낫습니다 그러타고 어떠케하리라는작정도업시 정처업는길을 떠난것입니다

하로종일 정처업시 큰길을딸아 걸어갓습니다 이제서지그러케먼길을 걸어보지못한 인호는다리가부러지는듯이 아프고 배가몹시곱하서 촌보를옴기지 못하게되여 그만길가에 헙업시쓰러지고말앗습니다 머리가 핑하며 모든것이 잘보이지도안햇습니다 그러나 놉흔고무른한울만 유집에서 보든것과 조금도틀림업셧습니다 인호는지금 따뜻한방속에 누운것 가탓습니다그리고 어머니도 누님도저헤안자바느질하시며 자미잇는 이약이를하는듯햇습니다 그리드니 인호는아조 마음노히 눈뜻이 고요히 잠들어버렷습니다

인제는 해님도 서산에넘어가서사방은칠칠 어두워집니다 그때저쪽으로 마차한대가 밧비밧비몰아오드니 인호가누은 그겨테와서 마차는떡섭니다 그리드니 늙은한아버지 한분이 마차에서 나려와서 인호의겨트로닥어서서 한참 잠자는모양을들여다보고잇슴말로

「애도참귀엽다 왜이런애가어게나 이런길가에 누어잇슬가?」

하면서 곤히잠든인호를 흔들어깨웟습니다

「이애이애 일어나거라웨길가에누어자느냐」

한아버지와 이소리에 인호는잠을깨여일어나면서

「어머니!」

하고 놀랫습니다 그러나 그압페는 낫몰을 한아버지한분이서서 이상하다는듯이 인호를나려다보고 잇섯습니다 인호는못그런뒤 머리를숙이고 가만히안자잇스니까 그한아버지는

「이애 너어데서오느냐그러고어쩌하야 길가에서자느냐」

하며 물으셧습니다

인호는 배가곱하서 맥업는소리로 인제까지지난이약이와 오늘고향을떠나 먼길을 것고나니다리가부러지는듯이 아프고 배가몹시곱하서 그냥쓰러진것이이러케되엿다고 숨김업시 차근차근 이약이햇습니다

그말을 다듯고난 한아버지는

「에 그러면너배곱하서 그지경이되엇고나」하면서 마차속을뒤지드니 떡세개를 끄내어주며

「이것을 먹어라 오죽배곱흐겟니」

햇습니다 인호는 넘우반가워서그떡을바드며 감사의눈물이압흘가렷습니다 떡을다먹고난 인호는 인제정신이나며 긔운도낫습니다 그러나 천지어두워지는데 어데로갓스면조흘지 압길이아득하얏습니다 그때그 늙은한아버지는

「이애 너인제어데로가겟느냐」

하고 물엇습니다 인호는역시긔운업는소리로

「한아버지 참으로저는갈곳이업습니다」하고서 흑흑늣겨울엇습니다

한아버지는 그제야

「이애 나와가티 아니가겟니우리집에 심부름하는아이가업서 아조밧버못견되겟다 우리집은장사하는집인데 너와서 심부름이나 해봐라」

하며 다정하게 말슴하섯습니다

인호는 불에빠진사람이배를맛난것가티 깃버뛰며

「한아버지 정말저를더려고가세요?」

하며 그래도 밋지못하겟다는듯이 도로물엇습니다 한아버지는빙그레우스며

「오냐 더리고가고말고 너만가겟다면 더리고가지」

햇습니다 그리하야 이가련한인호는 다정하신한아버지의 도음을바더 마차에안자 한아버지의집으로왓습니다

태양광선과인공광선은 생활상어썬관계가잇나 (三)

건강증진과능률향상에업지못할

◇자외선의위대한힘◇

우리의피부는 몃주일동안 흑은몃달동안 자외선(紫外線)을 쏘이지못하면 신체의구성 원소되는「칼시움」과 인(燐)이 업서저서 마츰내곱사동이되는병에걸리어 중병에빠지게됩니다 어쩌하야 그런케되는가하면 어린아이들은 골격이 매우연약하야지고 어른은긔력이감퇴되어 감긔가티여러가지병에걸리거나그병에대한 저항력이 업서지고맙니다

이에대하야 미국정부의 생명통계를보면 매우 잘알수잇습니다 그통계를보면 사망률이 제일놉흔때는

겨울석달 동안입니다 웨그런고하면 이때는추워서 자연문을닷고 집안에만 드러잇는관계도잇겟지만 연긔가 공중에가득차고 또한해ㅅ지짧어서 태양광선을 쏘일시간이 단축하야저서 사람들의몸은 자연약하야지게됩니다

불행히도 사람에게 제일필요한광선이따우에도착도하기전도중에서 구름、지애、연긔、창문등기타여러가지장애물에 태양광선은 가로막혀 그유익을입지못하는수가만습니다 특히우리의살림집은 이러한 태양광선에 직사를방해하는곳을 피하야지어야할것은 물론이요 가급적으로창을할어태양이직사토록항상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실노이는

영양잇는 식물을 취하는대것보다 아모비용도들지안는 태양광선을 잘밧도록하는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매우중대한문제입니다 아즉이에대하야는 연구하지못한것이만흐나 장래에 연구를요하는 실생활문제에 중요한부분입니다 즉어쩌하면 겨울에도 녀름과가티태양의 방사열을바며 건강을향상 증진할수잇슬가하는것이큰문제입니다

또한 흥미가잇고 주의할만한것은 방사선문제 (放射線問題)입니다 이문제의전반을 고찰함에 제일필요한것은 진동의파장(波長)입니다 「엑스」광선에 도단파장(短波長)장파장두가지가잇서 정반대의결과를 이르키는것과가티 자외선과적외선도 그와가튼 성질을가젓습니다 또한

가튼광선 중에도한쇠혜광선과 다른쇠혜광선과는 꼭가튼것이아닙니다 그리고육안에보이는 자외선중에도 여러가지새다른광선이잇습니다 그이채잇는 광선은또한 마찬가지의효과와치료력이잇는것이아닙니다 이러한사실들이발견되어 실로복잡다단한 연구문제가 되엿습니다 어떤전문가는 우리의자외선이라고부르는 광선을 분류하야 「엑스트라바ㅡ이렛」、「바ㅡ이렛」「인트라바ㅡ이렛」세가지로 고칭하얏습니다

「엑스트라바ㅡ이렛」이라는것은단지 특종에 인공등(人工燈)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별다른효능은업스며「바ㅡ이렛」은일광에서는물론이오 인공등에서까지생기는 실지

건강선 (健康線) 입니다 그리고「인트라바ㅡ이렛」은성질상 눈에보이는 광선과거의가튼광선으로 그살균력이라든지 몸에「비타민、듸」를 발생케하는힘으로보면 그러케갑이잇는것은 아닙니다

그외에「에ㅡ텐」파동중에도또한아지못할광선이잇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의 단파장과「엑스」광선의장파장사이에도 아직알수업는것이잇습니다 여하간공간에 파동운동(波動運動)이 잇다는것만은 물리학자들이 알고잇스나 생리학자들은 아직 신비적 [illegible]

朝鮮少年行進曲

남궁랑

동무들아 우리들은 이나라아들
（合唱）ㅡ그러치 그러치 그러쿠말고
×
산과바다 변한대두 또변한대두
（合唱）ㅡ우리들 맘음랑 변치만맙세
×
（一節削除）
×
아츰이면 속히속히 일어나야지
（合唱）ㅡ녜쎄요 녜쎄요 닭이울적에
×
우리들은 서로서로 사랑을하자
（合唱）ㅡ그러치 그러치 싸움은말고
×
동무들아 우리들은 딴생각말고
（合唱）ㅡ일하자 일하자 힘써일하자

ㅡ‖鏡城에서‖ㅡ

家庭病院

【4】

불매증(不寐症)

（원인） 신경질、히스테리、질동사람에게만흔데 과도한일과근심하는것들이원인이되어 병석에눕게됩니다

（예방） 전에가젓든복잡한마음을 잘돌려도록힘쓰며 매일잠자리에드러가기전에목욕을하고 자기전에흥분될 책이야기 자극될음료를마시지말고 며옥잠자리에가기전세시안에는 아모것도 먹지안는것이 조흡니다

（간호） 술을슬기는사람은자기전에우이스키ㅡ、「쎄리ㅡ」가튼술은 조금식마시는것은관계치안흐나 수면제(睡眠劑)가튼것은안됩니다 어쩌한약이든지 습관성이됨으로먹지안코못견댈경우에는 의사의지도를밧는우에별도리가업스나 별큰아픔이업스면잠자는것이제일입니다

（주의） 불면증과 신경쇠약쳐문명은병행하고잇스나 외지가구든사람이면병쳐정찰을어시할수잇슬것입니다

재비

李東 [illegible] 在鎬

[illegible] 하나서
강남간재비
지나간 봄을찻고
언제올려나
남쪽나라 바다를
어이옵데냐
나는야 소식몰라
궁금하구나
( )
하늘에서 빤스히든
재비한쌍
초마쓰레 빨래줄에
걸어안저서
주고밧든 노래가
또듯고십허
꼿피는 봄날이
그립고다야

금음날밤

四江　金貞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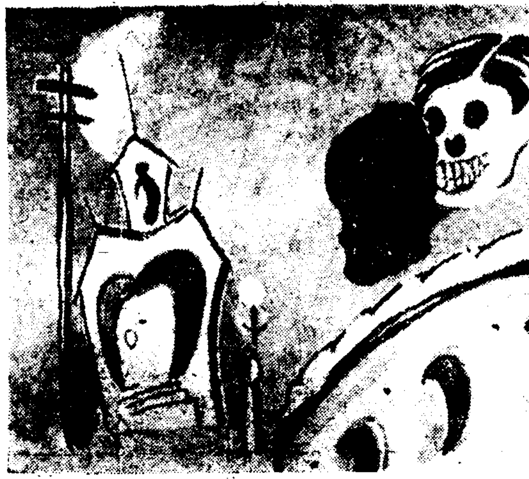
어머니래일은새해래요
줄겁고반가운새해래요
새해는얼마나깃분가요
×
어머니래일은새해래요
희망에빗나는새해래요
새해는희망이잇슬가요
×
어머니래일은새해래요
오늘밤잠자면눈센대요
나는이밤을새우렵도다

短篇小說 寂滅 (十四)

泊太苑 作·畵

―어떤때는 또이러한일이잇섯습니다 나는 오랫동안집안에만 붓박혀잇섯든 몸이라어데로든지 한바탕 휘돌아다니고십허 안동네거리로 뛰어나갓든것입니다 원래 나온목적이 그리한것이니까 정처도업시 위선종로네거리로 발길을 향하야든것입니다 내가 막종각압흘지냅시하야서 갑작이 소낙이를 맛낫습니다

쌩쌩하게 빗이내려쐬다가 아모리 예고도업시 쏘다진터이라 거리의사람들은 모다들백화상점안으로 뛰어들어간다첨하미트로 다아선다 또는 목적한곳으로 달음질친다…… 어떠튼 야단법석이일어낫든 것입니다 그때 기약지안코 내마음속에, 어린이와가튼 자랑이 떠올랏습니다 극미한틈은 모자를위하야 옷을위하야 또는 신발을위하야 그런케들 야단이지만 날좀보아라 어떤가!」―



이러한 「철업는우월감」(優越感)과 그「절대권력」(絶對權力)과를 늣기고십허 견데지못하얏든것입니다」 새람에 나는 주ㄱ죽은벼쓰지 차든것입니다……

!쏘다지는 소낙비를그대로 마저가면서 나의산보를 계속하얏든것입니다 하 하……

―또 어떤한때 내가 구리개네거리로 걷어가려니까 갑작이「애O 행행」하는경적(警笛)소리가 남대문쪽으로서 들려왓습니다 몰아다보니 소방자동차가이리로 향하야 질주하야옵니다

원래가 「소방자동차」란놈은우리에게 호감을주지 못하는불권으로 그「애O 앵앵」하는경적소리부터 김흔 밤중가튼때들으면 유산하고 야릇하고언산은 늣김을 주는것입니다―만은 그리케 대낫에듯노라니아조관연하게 다른맛이 잇섯습니다 그뿐아니라 소방자동차란놈이 한번 김풍가리달려오자 거리우의 모든것은 ―전차라이력거리자전거라 자동차라 길가는사람은 말할것도업시 ……이러한 모든것은잇스나 업슴이나 다름업고 ……오즉넓은거리우에 존재하는것이란 빨가케칠한 소방자동차한대라는 그리한늣김이 잇섯습니다 이것은형케커도 웨측이 경험하야 보신일이잇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튼 그것이 내게는한업시장하게 보여든것입니다 그중에도 더욱이나 「위세당당」 하야보이든것은 말할것도 업시교통순사여홀 돌파하야 나갈때엇습니다 그것이 만약보통때라할것가트면 규정(規定)에 위반하얏다고 자동차운전수를 붓들고서…또는 좌측통행을 하지안햇다고자전거탄아이를 붓들고 한시것괴세를 붓히는 교통순사도고만이 「소방자동차」라는 「괴물」아페서는 그존재를 여지업시무시당하고마는것이아닙니까? 그뿐아니라 자긔의 존재를무시당하면서도 돌이어 「그것」을위하야 길을치어 주어야만 하는것이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한순간 나는저도몰으게 「통쾌하다!」고 소리치든것입니다 그리고봉건시대 (封建時代)의 전제군주(專制君主)―례를 들거가트면 진시황(秦始皇)이라든지 네로(Nero)가튼이를 아지못할사이에 련상하고 [illegible]권력」(絶對權力)과마음기피 탄복한결과엿든것입니다……

그는 여긔서잠간 이야기를끈헛다 그리고 가장유쾌한듯이걸엇다……우섯다 그러나 그것은몹시도공막(空漠)한늣김을나에게주는「웃음」([illegible])이엇다

그는 다식어버린차를 한목음마시고나서 한참동안이나멀거니 천정을보고잇섯다 그동안에 내운담배로하야 방안에연긔가 숨막히도록이나 가득하얏슴으로 나는 일어나서창문을열어제켯다 싸늘한바람이 밤을새여가며 창열어주기만 고대하고잇섯든듯키나 불어들어왓다

밧게는 잠을 차차로이쌔여가는 우리의서울이 오전여섯시이십분전에 하픔하고잇다

나는 이욱하나 창밧 청계천(淸溪川)빨래터에 새빨안손을찬물에담그고 아조무표정(無表情)한얼굴로 빨래를하고잇는오십넘은안악네를 바라보고잇섯다 그리다가 「나의가엽슨친구」는자긔의이야기를 마저들어주기를 바라고안젓는 생각을하고 창을닷고 내자리에가서안젓다 그는담배를 새로부치어물고스스로 자신을비웃기나 하는듯이입을세ㅅ죽어려고 숭거웁게이야기를계속하얏다

「아이」가업는 것은― 자궁병으로

지금이데일중요한때

무서운것은자궁병으로 첫째로수(壽)를감하고 둘째로는아이를못나흐며 셋째로용모(容貌)가보기실케낫버집니다 자궁병에는 급성(急性)은듬을고 흔히는만성(慢性)입니다 여러분도다아시겟지요

●월경부됴한분
●상긔두통나는분
●견비와현긔나는분
●허리와배압흔분
●대하증잇는분

이런증세잇는분은 녁신경과민(神經過敏)으로혈색이낫브고얼굴이시퍼럿습니다 또밥이붉으신분은 흔히 대하증이잇는분으로어느증세나다자궁병이나경도에병이잇는증거입니다 이것이오래계속하면 점점쇠약하야 몸은수척하야지고 빈혈(貧血)이되며 궁홈은괴롭고 숨이눌갓븜니다 그리고또음식은잘아니먹어지게됩니다

內服藥 命之母

婦人藥界의王座

外用藥 오기나球

命之母와오기나球를兼用하고 全治하신분

平安北道[illegible]郡[illegible]北面北下洞 金錫[illegible]夫人

하며 대변이잘아니보이고 긔운이답답하야

●**어린애가티** 성미가급해지고 죽으만일에도화를잘내며 혼자서쓸대업는지난일을생각하고 공연히잘울며 청을내고 술며서하며일에자조권태(倦怠)를늣기고쉬곤하며모든일에실증이나고 밥에즐립고도장이잘아니오며 수족에수긔(水氣)가잇고혈각긔(血脚氣)가되야 수족이제리며 한긔가나고신열이생깁니다 알에배가괴롭게참하며 허리건처가쉽새업시압흐고 오줌이자지며 국부의가 가압흐고가렵고 불결하야고약한냄새가나며 처음에는게란의흰자위와가튼런한며하를이나 그빗이누르거나또는푸르며삐삐로피고고름이석기거나 또는피가나오는일이잇습니다병세가이러케되면 매우중해진것입니다평생아이를못나케되야괴롭고술픈세월을보내게될뿐아니라다시고칠수업는중증이되야생명까지도일케되는일이잇습니다이시긔는던일긴요한째로 또매우위험한시긔입니다더욱이

●**婦人病의大敵**은 초봄의옴흔는몸칭의긔후로몸사치습든저옴의긔후가 차차따듯하야지면특히월경이고르지못하야 긔분이공연히조치못하야집니다 이것은여러분이 해마다경험하실줄도암니다 또대중이나 산후의분은 흑은류산(流産)난산(難産)외롤행홈 당하며축은산욕열 (産褥熱)게 걸리기쉬웁습니다 어느것이나 봄철는 치위로랭하게 지병허윤이나타나는것으로 이삐는죽음이라도마음노치마시고 속히뎍당한치료를하서야합니다 이암에에 그치료법을자세히쓰겟습니다

●**아이업는理由**

여러부인병중에 자궁병처럼생기기쉬운병은업습니다 그리고대개는급작이생기지안코또한급히낫버지지안흠으로 처음에는자긔로도모르고 시후(時候)가변하야조우월경이고르지안흔궁홈도생각함으로자인히치료가늠니다 또한번이병에걸리면아모리경증의것이라도아조근치아니되동안은아모리하야도아이를못나케됩니다 세상에는아이가업스면자긔들부부에게는가이가업슬팔자로만알고그것은어씨하야아이가아니배이나하는까닭을생각해보지안흐며딸하서아모치료도 하지안는분이만흔것은참으로한심한일입니다 그러면 어떠케하는것이데일조흐냐하면가괴에도부인의위생에관한지식을알아 이것을실행하는것이무엇보다도급한일입니다현대부인과에유명한북단(北畠)좌등(佐藤)서권(西卷)삼의학사와증뎐(增田)의학박사가상세히쓴

●**婦人病者注意**

라고하는책에는 녀자일생의위생을하나토빼지안코기록하얏습니다 그럼으로아이업는부부는자궁의모든병으로고생하는분들은 하로라도속히이책을한번보십시요 東京京橋區新榮町笹岡省三에게로엽서나또는주소를자세히써서이신문에오려우표를무처보내도좃습니다청구하시는분께는약은쓰시든지아니쓰시든지이책을거저무료로보내드립니다

兒孩의
감긔ㅡ신열ㅡ은
오인에限함

オイン

第一安全한 兒孩專門의
感冒解熱劑（감긔해열제）

特長
▲最新高貴藥配伍
▲小兒에服藥容易
▲副作用이絶無

主効
◆감긔 ◆신열
◆流行性感冒 ◆肺炎
◆百日咳 ◆신열一切

▲定價二十錢、五十錢、一圓
本舖 東京 大阪 丹平商會
各藥店에有함

直治水
CHOKJUISUI

一滴은…疲勞한눈에
一滴은…讀書한後에
一滴은…就寢가기前에

直治水（주치수）

도라홈 上氣眼 에偉効가有함

主効
☒흘인눈 ☒곪는눈 ☒眼痛
☒돌림眼疾 ☒膿眼 ☒진무른눈
☒[illegible] ☒삼눈 ☒[illegible]

▲당신을참으로곱게하는

白色美顔水（백색미안수）

백색미안수로한화장의아름다움은다만희거나고웁에만쓰치지안코말할수업시청신하며살바탕이본래그런것가티보고도여엽브게보입니다

◇

백색미안수의화장은참으로힘들지안코스고와시간이오래걸리지안슴니다 급하게하드라도훌륭히곱게화장이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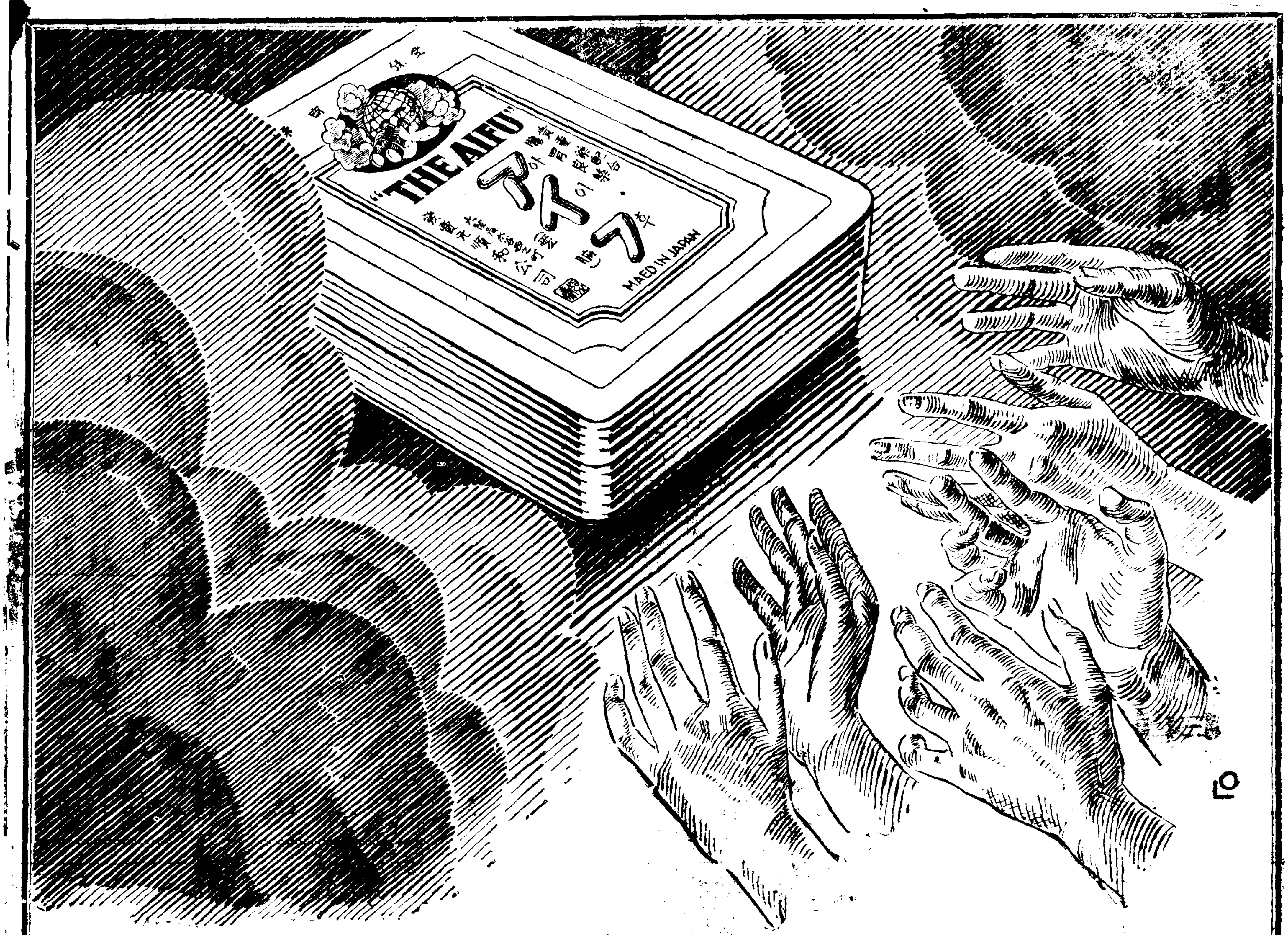
또화장솜씨가서투르신분도것칠거나기름이세어서백분이잘아니오르시는분도백색미안수면훌륭히고웁게오릅니다

◇

백색미안수는도곡약학박사의화장품연구소의독특한연구로써완성된화장품으로순수하야무연입으로연분의념려가는것은족음도업습니다

멀리외국에까지
소문이놉흔물분

製造元 東京 大阪 桃谷順天館



慢性胃腸病에는

断乎히アイフ（아이후）를服用하십시요

貴下의病苦는盟誓코一掃

慢性胃腸病은고칠수업는病으로알고自暴的으로버려둠은危險無上한일입니다、 慢性의原因은胃腸內壁部에生한炎症卽험이낫지안는까닭입니다、 이炎症을오랫동안버려두기때문에非常히頑固히되야、或은潰瘍을生하며、或은癌腫의素因을맨들며、或은出血이되며或은疼痛이나서、乃終에는무서운結果를生합니다、이러한頑症에는반듯이아이후를服用하시시요

아이후는內服과同時에主藥은炎症部에附着하야恰似히外科的治療를함과가티炎症을徐徐히고치며여러가지故障을업새어健全한胃腸으로回復하야、貴下永年의病苦를반듯이一掃케할것입니다。

이린胃腸病알른사람은꼭아이후를服用하십시요

●食慾不進하며가슴에쨍고嘔吐가나며●泄瀉나軟便으로大便에粘液濃汁석기며
●배창하며방귀가자조나고배가쓸흐며●胃酸過多症으로食前食後胃部가아프며
●滋養物을먹어도몸에안붓고衰弱하며●元氣衰하며顏色낫브고神經過敏이되며
●肺尖肋膜에故障생겨기침과熱이나며●飮酒나不消化物을먹어도곳泄瀉가나며
●重症으로몹시아프고大便에血液濃汁이석기며胃癌又는腸結核等의疑心이잇는危險症에는반듯이아이후를服用하십시요、 아이후는內服과同時에그主藥은腸內壁의糜爛面에附着하야、炎症을鎭靜케하며、粘膜을强壯히하고、粘液의分泌를減하며、 腸의蠕動을制하야泄瀉를막고、疼痛을鎭靜케하는故로食慾을增進하야血色을조케하며、榮養의吸收를佳良히하야、健康을顯著히增進케하는效果가잇습니다。

아이후藥價

普通アイフ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四十五日分 七圓
重症用特製　十一日分 五圓　二十三日分 十圓　三十六日分 十五圓　八十日分 三十圓

아이후는全國各藥店에잇습니다　本舖로注文하시는분은爲替나或은振替大阪二四五番으로送金하시면卽時發送합니다

發賣本舖 順和公司

大阪東區淸水谷西之町一六五番地
振替大阪二四五番　電話東一五〇〇二　一五〇〇三
支店　大連市山縣通一丁目　順和公司

被告七名全部出廷 事實을絶對否認

박형병리병의등전부가사실절대부인 일본부의사실도전연히업다고부인해

四次共産黨公判續報

【평양】작지속보=재사차조선공산당사건리병의(李丙儀)박형병(朴衡秉)등일곱명의복심공판이십팔일오후두시부터 평양복심법원에서 등촌(藤村)재판장주심 국지(菊池)월미(越尾)량배석판사 석천(石川)검사립회하에 근조(近藤[illegible])박종무(朴[illegible])최봉묵(崔[illegible])한용(韓[illegible])네변호사황석(京城李仁[illegible]辯護士는未參)으로 개정되엇다함은 작보와갓거니와 심리는 리병의부터시작되엇는바 리병의와 서래석(徐[illegible])은

▲李丙儀[illegible]會合하야[illegible]組織을協議한事實

▲朴衡秉家에會合하야部署를決定한事實

▲許一、李樂永、藤木光外證言을듯고 대부인하는동시에 경찰에서자백한것은 고문에의한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다음 박형병과김경래(金京泰)가역시

▲日本部에會合하야共産靑年會[illegible]組織한事實其他一切를듯고 부인하얏는데 이중요공판이어떠케될가하야 일은아츰부터 사도만방청인으로 방청석은립추의여지도 업섯스며 평양경찰서에서는정사복경관여러사람이나와서 법정내외를경계하고잇는데 피고들은오러우고(獄苦)[illegible]것는데 이참백할뿐아니라 지난겨울의 추위에다소간부긔까지잇고잇엇다

미루어 복심판결은 일심보다나 자질소망이보인다는바 증인심문관계로 아즉속행공판기일은 미정이며 일심판결은다음과갓다

▲李丙儀、朴衡秉懲役各六年 ▲吳相善同五年 ▲徐鍾一同四年 ▲金會泰、洪淳起、鄭南局各二年

正義女高動搖

無條件으로解決

【평양】정의녀고(正義女高)의 분규문제는 루보와갓거니와 사학년갑을조(甲乙組)를동정하야 이학년에까지 동정맹휴가단행되자 그계략에한 학교당국은학생측을 무마하기에 진력하야 때가학생사건의 직후이요 또한졸업을 한달압해노흔 사학년생도로서도 이때에더강경할바가아니라하야 상방이 원만타협되어 십팔일부터 무조건으로 등교하야수업을밧는중이다

大部分無事 八名은起訴

학생칠십여명두불긔소

元山學生事件續報

【원산】원산학생만세사건으로 지난일월십칠일부터 원산경찰서에검속되어 엄중한 취조를밧다가 지난팔일 원산검사국으로 보안법(保安法)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이라는죄명으로 송치되어그간원산형무소(元山刑務所)에수용되어 곡천(谷川)검사의취조를밧든원산청년동맹(元山靑年同盟)간부 김종국(金鍾國)외구인과 불구속으로서류만 검사국으로넘어간원산청년회관(元山靑年會館)두씨녀자고보(樓氏女高普)학생칠십칠인에대한사건은 십팔일오후오시경에 신간회덕원지회장(新幹會德源支會長)강과덕(姜果德)동원산지회간부(同元山支會幹部) 전규(全[illegible])량씨와불구속으로서류만넘어간학생칠십칠인을제하고 음팔인은 긔소되엇다

元山府場村洞 青年同盟幹部 金鍾國(二八)

元山府南山洞 同 金永煥(二[illegible])

德源郡縣面斗方里 同 劉[illegible]華(二[illegible])

同 南相元(二[illegible])

元山府龍洞 同 南相孝(二[illegible])

同 盟員 [illegible]

元山府上里 海星學校教員 盧允衡(二[illegible])

咸興郡荷西里 靑年同盟幹部石洞泉(二五)

咸興郡荷東里 同 韓 松(二四)

龍岡에強盜

【평양】지난십오일오후열한시경용강군지운면 만하리(龍岡郡地雲面[illegible]里)로진실(盧眞實)의 집에 복면강도가침입하야 어린아이들과 집을직히든 주인의안해김씨(金氏)를 협박하야현금팔십원을강탈한후 또다시 그들을[illegible]하다가도주한 변태성욕적강도가 잇서 방금룡강서에서는범인을 체포코자 극력활동중이라한다

車輦館事件

卄七日開廷

피고는절대로사실을부인

唯一證據는警察調書

【평양】차련관(車輦館)주재소습격사건으로 신의주일심에서사형(死刑)을밧고 복심으로넘어간 김승연(金承[illegible])사건의속행공판은 오는이십칠일로 결정되엇는바 일심에서결정된사형판결이 무슨적확한물적증거(物的證據)에의한것이아니라 다만경찰에서자백(피고는이자백을고문(拷問)에못니겨 허위공술(虛僞供述)을한것이라 주장한다)뿐이므로 피고는이자백을공판정에서부인하느니만콤사건의결과가주목되는것이다

南原에또檄文

경찰은팔방으로활동개시

【남원】전북남원(南原)지방에는 지난십사일밤 열두시경에서 내정문등사거리에 과격한문구를라렬한격문(檄文)이또부터잇슴으로 경찰은 극비밀리에대활동하며 일방으로는 [illegible]일간검속하얏다가 방면한사람[illegible]

親祖母걸어 養孫確認訴

남의집에양자갓다가다시오라고 친조모를걸어서양손확인소제긔

海州甲富의骨肉戰

해주갑부(海州甲富)、아니황해도갑부(黃海道甲富)로한세하는 백만장자(百萬長者)안승억(安承億)은 현주소를개성군동본정(開城郡東本町)에두고지난일월[illegible] 로루차 언론이만햇섯다 그러다가그소유를 신씨며외로 이동할 에이르러 안승억은 영영그재산이자긔손으로 돌아오지 못할가하야 그실자로하야금 그생모의양손이 되게하야 재산을찬부자[illegible]

崇實火災

손해사백원

【평양】지난십칠일오후네시반쯤평양숭실중학교산중에서발화되엇음을교원이발견하고 대소동을일으켯는바 즉시소방대의출동으로진화하얏다 손해는사백여원이며 원인은 굴뚝으로불똥이나와부튼것인데 하마트면큰불이될번하얏다

李英判決文 參考키로決定

김성태아는김종호리두대등

證人兩名도召喚해

심리는계속하야 동경부(東京部) [illegible] 의 △[illegible]、洪淳起、鄭南局외심리가 진행되엇는데 이들도역시 일심에서 주장한바와가티 이산판(以[illegible])에서허일(許一)을초대하야 조선사정을듯고커가친회는 잇섯스나 공산당동경부를 조직하지아니한것과 삼지로서아에서 온것이아니라 오상철이가 주선한것임을 주장하얏는바 이로써사실심리를 마춘후피고와 변호사측에서 증인신청이잇섯는데 그중 김정태외증인으로김종호(金鍾浩)와리두대 ▲李[illegible]人)만이 채용되고 동시에 리영(李英)의판결문을 참고키로결정한후예칭하얏다

雲田公普生

某計劃發覺

【정주】정주군대전면 운전시(定州郡大田面雲田市)에잇는운전공립보통학교(雲田公立普通學校)삼사학년학생이 지난륙일에만세를부르고저 하다가 미연에발각되어 지난십칠일 애칭여북(鄭汝[illegible])(一[illegible])과 리긔첫(李[illegible])(一[illegible])두명을검속하야 취조를 하고당일에불러보내엇다한다

首犯이輕刑 從犯이重刑

다소간감해질희망이잇서

前判決參考의理由

법정에서 평양지방법원의 리영판결서를참고키로하얏다함은압수잇거니와 리영은 재사차공산당중앙집행위원장이라는최고수령으로서 평양지방법원에서징역사년을밧고방금평양형무소에서복역하는중인바 그종범이라하는피고들은수범보다이년이넘흔륙년징역으로부터사년삼년이라는 중형을일심에서 바닷슴으로 리영의판결문을참고한다는것은 복심에서피고들의형(刑)을작량(酌量)함에가장큰관계가잇는바임으로 [illegible]에잇서서는 변호사와재판장(검사)의의견이합치되어 채용키로한것인바 이로써야다옥파가리판결되엇다

學生事件最初判決

最高[illegible]

[illegible]에언도해

[illegible]의公判

【함흥】함흥상업학교(咸[illegible]校)생도가 지난달십사조례시간에 만세를 부르고 세라[illegible]산포하[illegible]에 괴엘을[illegible] 시위운동을 한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다섯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엇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지난십칠일 오후세시부터 이에대한공판이 함흥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갑비재판장 (甲斐裁判長)의 심리와미창(米倉)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엇다 판사가일교류학년생(永[illegible]郡[illegible]公立學校六學年生)이 학교에요구조건을 제출하고 응치안는경우에는 맹휴를단행하는동시 만세를부르려든사건이 미연에 발각되어 다섯명을 담임한류해문(柳海文)한격만(韓[illegible])량인에게 가장[illegible] 공판정에서 피고들의형(刑)을[illegible] [illegible]

同 同 同 同 同 / 同 同 同 同 兩個月

[illegible]

學生[illegible]釋放

靑年은留置

【진흥】영흥군이흥공립보통학교(永興郡仁興公立普通學校)[illegible] 바임으로[illegible]

광명덕(張[illegible]、李[illegible]) 량인은 그후[illegible]사희 석방이 되엇스나 배후(背後)에서 책동의 혐의자로서인치된 리배준 리배춘 리씨는이것에 [illegible]하지아니하얏슴

求刑은一年半에 六個月을判決

전부륙개월에언도하얏다

◇會寧檄文事件의公判

【회령】회령격문사건의피고청와 관결언도긔일인 지난십칠일 [illegible]동맹간부박병군(朴秉[illegible])박세오외구시부터 피고등의 가족과 친지로 공판정은 초만원을[illegible] 창(朴世[illegible])량인에대하야 검사로부터 일년반개월구형에 각각징역 륙개월의판결언도가잇섯다 그보한바어니와 [illegible] 형이잇섯다함은

金世淵勸諭入黨 三日만에脫黨

이십오일에판결을밧게된

◇ML黨全一供述

[illegible] 김세연(金世淵)의 권유로입당(入黨)하야간도(間島)방면으로[illegible]당세(黨勢)확장코자 최근에사망한고광수(高光洙)를 맛나려간도에갓든일은잇스나그 후입당한지삼일만에 탈당(脫黨)하얏다는것을 극력주장하얏는바 결심한후 검사는일심대로 구형하고 한번호사의 변론이잇슨후폐정하얏는데 언도는오는이십오일이다

曆	日
陽二月十九日(水曜日) 陰正月(大)二十一日 庚子	
日出	前[illegible]
日沒	後[illegible]
滿潮(仁川)	前[illegible] 後[illegible]

天候

京城 明日 晴 昨日最低 [illegible] 昨年今日正午 [illegible] 今日正午 [illegible]

라디오

(二十日) 開局一週年紀念[illegible] 京城府[illegible] 氣象狀況、各地天氣概況 料理[illegible] 家庭講座[illegible] 一、三〇映畫物語[illegible] 四五ニュース 六、三〇[illegible] 琴[illegible] 介[illegible]七、三〇 [illegible]

競技運動

내몸내運動으로 튼튼히하자

陰正에지음하야 우리競技몃가지

(7) 金永濟

三·널뛰기 (續)

【바】始球法續 【불레장】

『밥ㅅ동장』에서 또得點하면 그다음에는불레장을시작한다 이것도모ー든것은 다른始球法과 가트며 장을자ㅅ자리에노코 大將과大將이 마조섯다가 시작을불으자 大將ㅅ기리 對立하야 自己섯든位置에서 敵의位置로[illegible]한後 장을먼저치는것인데 [illegible]하는方法은장을中心으로右便으로[illegible]하는것이다

『오금장』『불레장』에서 得點하면 마지막으로 오금장을치게된다 『오금』이라는말은뿔음이라는말인데 모ー든方法은 다른始球法과 同一하며 得點한便의大將이 장을다리압에로부터 兩大將사이로 空中에投上한다 이投上한장을어느大將이든지먼저치는것이다

以上과가티 漸次로段을밟아올라가는것인데 장을取扱할權利를가지는사람은 前게임에서得點한便의大將이다 그리고前記五種을 한번式進行하기도하며 또는一種目의始球法을 三次式繼續하야 進行하기도한다 即방장에서 三次를得點하여야만 천장장으로올라갈수잇스며 第二種에서도三次得點하여야만 第三種으로 올라갈수잇게된다 또이와가티每種에三次式得點하야 第五種까지올라가는것이다 그리고競技進行中 甲便이萬若 천장장을치다가 乙便에게得點을주게하얏다하드라도 지금까지밟아온階級은 無效가되지아니한다 即장을取扱하는權利만빼앗기는것이다 시작할때에장을치는사람은 반듯이大將이라야한다 萬若다른사람이치게되면 罰則으로하거나 또는無效로하거나한다

(사)攻擊과守備 前記始球法은 매번方式이 다르지만 攻擊이나守備에는 어느때를勿論가튼方式으로進行한다 『마』勝負에서도말한바와가티 장치기는蹴球처럼 소울門을[illegible]노코 그門으로攻擊하는것이아니고 自己금에서敵의금으로 攻擊하야 장을금으로넘겨보내기만하면그만이다 그럼으로 서로連絡을取하야 [illegible]한手段으로 敵의금으로 攻擊하는것이다 딸하서守備도攻擊을防禦할만한技術이잇서야함으로 各個人의技術도勿論 養成하여야할것이고 또팀웍도잇서야할것이다

(아)罰則 장은채로치며連絡을取하야 금을넘기는것임으로 競技中에 萬一왼에記한罰則을犯하면 蹴球의『핸드볼』이나 『프리킥』처럼 犯則한位置에다가 장을노코犯則者便의금으로처보내게된다

一、채以外다른것으로장을칠때

二、故意로장에손을接觸할때 (地方에딸하서 手足을使用하야도無妨하다는곳도잇다)

三、敵을故意로[illegible]시킬때

四、敵의動作을妨害할때

(자)效果 이競技가 우리에게어떠한效果가잇다고 낫낫치다말하지안트라도 體育家의要求하는精神이나 肉體를全部充分하게發達시킨다 蹴球나 호케ー나野球 籠球等모ー든團體競技를함으로되엇는 效果보다도 그以上의效果가잇슬것이라고생각함으로 더仔細한것을쓰지안하도 여러분讀者의 推測할바일것이다

× ×

世界에서盛行하는 모ー든團體競技中에서도 第一合理하다고할만한 이장치기를몃百年前우리先祖는어떠케獎勵하얏는지 알수가업스나 요사이에이르러서는 深山僻地의牧童들의 작난ㅅ감에서 더지나지못하게되어잇다 이것은勿論 李朝以來로 運動家를賤待한까닭도업지안흐나 어쨋든이러한運動을積極的으로 獎勵하지못하는것은 우리體育家된사람들의 큰不察이라고볼수밧게업다

압흐로 『긘네』(鞦韆)와 『줄다리기』를더쓰고저한다

米國의滑氷界

【上】

米國의스케ー팅도 歷史로는相當히오래나 進步되는程度로보아서는 아직搖籃時代를벗어나지못하야되며 오직아이스호케ー가他國보다 한걸음압선感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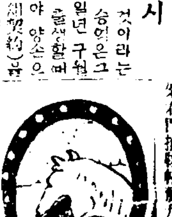
그러나이스케ー팅의普及으로말하면 참으로굉장하니 그中에特異한것은近來에이르러室內스케ー트場이생겨 漸次로더욱한南方에까지普及되는것이다 그리하야數年前까지도米國이든『카나다』에對하야이와가튼[illegible]를거터할만한發達된것은事實이다 다만아이스호케ー뿐아니라 스피ー드나、피규어라도個中에는[illegible]업는大選手가잇다

그러나스피ー드는各國의나라와에比하면 相當히이것으로滿足을늣기지는못할것인同時에 오히려그技術進步의程度로서는日本의스케ー트도무어米國의程度는[illegible]하다 米國의滑氷界를槪括的으로批評하자면 一口아이스호케ー나 스피ー드의短距離에만 조흔選手가생기는傾向을보면 米國의滑氷은얼음을지친다는것보다도 다라나기와또뛰기에갓가웁다 또그리고그日米國의스케ー트는速成的에置重하는傾向이다 딸하서스케ー트의進步性이缺乏하다 [illegible] 以上의反面으로커듬은非常한活氣를띄워 氷上에서이지만자못[illegible]的의氣分이現著하다

米國各種스케ー트에對하야紹介하건대 米國의스피ー드스케ー팅은 우에말한바와가티短距離的傾向이만흠으로 큰『스트로크』의悠大한强味는업스며 스케ー트自體부터 米國製는比較的짧은短距離의것으로 길이가길은『크리스차니아』가튼것은쓰지도안는다 各地에 室內링크가잇서 屋外에서 練習을못할지음에도 커듬은늘練習을함으로『커브』를도는데妙技가잇다

海外短信

◇埃及[illegible] 國際[illegible]競技聯盟은埃及아ー드의記錄은수年부터認定치안키로하얏다



沙漠의꽃

猿林山人作 李靑田畵

四五、이상한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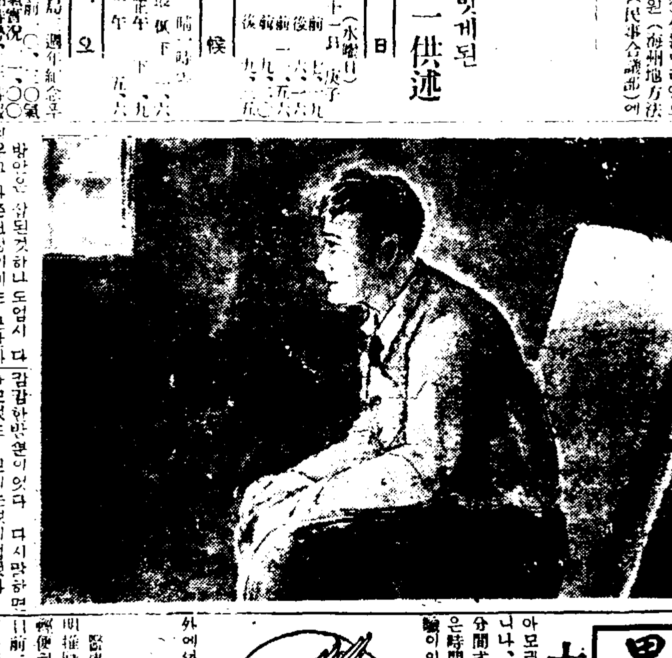
[illegible] 가득햇다 서희와 김철룡은[illegible] 그밧게 먹은것이 가득했다 구운고기한조각과 면보한쪽집어서 맛잇게먹기시작햇다 그러고 물병에서 물을딸하마시고 책상우에노힌 [illegible]을 검사해보앗다 [illegible] 신식모젤총으로 말굽쇠닷가노핫고 탄환이이뻑여게잇다 비외투가한벌、장화한켜레、천막과편막치는긔구한벌、그것이다찬찬히개어서방한모퉁이에노혀잇다 이것들외에 말하필만잇스면 사막의길을횡단하기에 넉넉할것이다

철룡은 재삼피생원의 주도한준비를 탄복하면서 먹기를마치고 불을입김으로끈뒤에 창문가로 옷을벗엇다

『번쯕』하고 이키버렷든것가티 번개ㅅ불이 방안을휙돌아나가버린다 철룡은 창문에업굴을대고 캄캄한밤중을내다보앗다 비오는소리는그냥 악수로 요란해다 멀리나 갓가이나 보이는것은 캄캄한밤뿐이엇다 다시말하면 아모것도 보이는것이업섯다 안키 그는다시 의자에안젓다 [illegible] 서우뚝허니안저잇는 공상햇다 아 [illegible] 새생활에대해 무한한긔대를가지고 바향업시 생각에잠겻다 또번개ㅅ불이 지나간다 그는 다시창으로밧글보려햇다 어둔 창문에얼굴을대고 번개ㅅ불이 [illegible] 아모것도보이지안는다 그는 다시지낼 [illegible] 번쩍하면서 한울과땅이 임순간광명한세계가되엇다 수수바람에 휩쓸리는양이 공중에 뚜렷이 나타나뵈엇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그의 주의를끌은것은 바로미테 사람형상가튼것이 보이는것이엇다 분명히 사람형상가튼것이 이편을향해서잇는것가탓다 그 그림자는 움작도아니하고 서잇는듯해다——아니 캄캄한어둠속에 그것이 움즉이드라도 보일수가업섯다 그곳은바로 이집부엌문이 잇는곳일듯하다 철룡은 다시번개ㅅ불이 지내가기를 기다렷다 번쩍하는불미테 자세히볼때에 그물건은 아즉드거긔 서서잇섯다 분명히 어떤남자가 비를마즈면서 거긔서잇는것이엇다

방안은 잘된것하나도업시 다 치우고 나즌천장미테는 포단과 담요가잇스며 테불우에는 여러가지 필요한물건이 노혀잇다 『이것은 다피생원이 준비해둔것입니다 닷새동안 이속에서 사셔야되겟습니다 안령히주무시고 빗게서무슨야단이 나드래도절대로나오지마서요 자 쇠가 떠러잇스니 안으로잠그시오 이방은 내셋간을두기로 약조한대나사 내허락이업시는 박세할이라도열지 못할줄아니와아모념려마서요』하고설희는불러갓다

철룡은 손에쥐어든 석냥을그어서 우선초불을켯다 그러고는 류리창문이잇는것을보고 조심스럽게옷을벗어 그것을꼭막엇다 그는 우선안심의한숨을 내불엇다 잇가부터 그의머리에는 반에갈것이 큰문제가되엇섯다 히가 아조천진란만한마음으로 한방에서 장을울자고자하면 어떠케 하나하고 큰심을하얏든것이다 새삼스럽게 피생원의 주도한 준비를 감사하다고생각햇다 그러나 방안에준비된물건을 다들쳐볼때에 그는더욱감사의 마음을금할수업섯다 죽으면 빠스켓을열어본즉 거긔는 구운고기와 면보와양짓으도면는두부(?)고사람의음식)와 [illegible]엿다



堅牢優良하고低廉

製麵機는長谷部式에限함

新型各種

製麵機、製油機、製飴機、精米機、製粉機

長谷部製麵機製作所

京城府[illegible] 大阪[illegible]

主長谷部[illegible] 電話[illegible]

呈進錄目 郵券入

名譽大金牌受領 發明品博覽會

[一] 新時代的의物理療法

新時代의사랑이면、[illegible] 療法이가하고[illegible] 作用인데、이[illegible]

[二] 幸福生活의今一步

[illegible]

不知中衰弱의要素를 消滅하는五分間!

醫學博士가九名까지 [illegible]

◇包裝 [illegible]

東京新療法研究所 東京市[illegible] 大阪市[illegible] 振替東京[illegible]

◇非賣品 入說明書 [illegible]

天馬行空의效驗

男性器의改造

大滿足! 弱小→强大化

[illegible] 一回마다形은數字的으로[illegible] 實驗界에서는天馬行空과가튼超越的効力을奏하는가하면[illegible]

新案 電燈自在器

大募集 宣傳員採用 月給五拾圓

特約店募集

本器無代進呈 千部限함

電燈自在器의特長

[illegible]

京城府花園町一三三 丸[illegible]合資會社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외과 전문 의학사 원병용근리 부산부영주정 전화 四五〇番

經濟時事

失業！操短！收益減

金解禁後의日本經濟界의趨移

日本의財界及一般產業界가現在어떠한狀態에잇스며또한將次어떠한方向으로推移하려는中에잇는가를보는것은 劃時에朝鮮經濟界의[illegible]現在及將來를아는데 크게必要한것이다 日本의財界事業界는 金解禁準備及[illegible]으로[illegible] [illegible]

生產制限流行

[illegible]

	昨年	今年
鐵材	二六萬噸	一八萬二千噸
丸鋼		
洋灰	三割八分	四割五分
生絲		二割
綿絲		一割七分二厘
人絹		五分
絹紡		一割二分
石炭	一割	前年實績의五分減
製紙	二割	三割五分
硫肥	三割	二割

此外에精糖은協定供給量減殺

事業收益漸減

[illegible]

失業群의增加

[illegible] 一月末日本全國失業者數는 [illegible]

正貨十億臺割

[illegible]

取引所株稅金을 高率로하라는意向

此는一種의投機抑制이다

◇商工省에서

【東京發電通】商工省은[illegible]取引所株[illegible]稅를 普通株보다高率로하야 [illegible]取引所株와普通株의[illegible] [illegible]取引所의取引所株取引[illegible]케되어가는모양이다

兩取合倂의 必要를益痛感

모다不振深刻으로

京仁兩取合倂問題는그뒤만흔[illegible]이될수업는狀態에빠저根本的振興가생겨睡眠狀態이나朝鮮의取引所問題는早晚間解決이되아만商業會議所側으로今年度의事業中[illegible]仁川取引所關係는一로京仁兩取合倂問題의解決을[illegible] [illegible] 減退하야一時的振興策[illegible]

依然猛烈한 硫安販賣戰

需要減退를念慮한다

[illegible]

新稅率適用을 免하는方法

對中輸出業者注目處

【東京十九日發電通】中國의海關稅金建制는二月一日부터實施되[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突法에依한 新賃金發表

＝二十四、五日頃＝

鐵道局에서는米突法의實施에依하야新賃金의比較表를[illegible]

一、二等 道路修築狀況

[illegible]

政府의所持米 三百廿五萬石

一月末現在數量

【東京十九日發聯合】農林省發表에依하면五年一月末現在의政府所有米는三百二十五萬[illegible]

分岐期가迫到

[illegible]

簡保加入者 渡日便宜施設

＝振替口座를特設＝

日本內地의簡易保險加入者로서日本內地에移住하[illegible]

株式 一層의 傍觀

市勢와市況（十九日）

前場反落

昨後場에反騰하얏드니今場에는다시反落하야▲東新六圓割의百五圓替後또五圓割의四圓九十錢이엇다가五圓十錢大引▲京取十七圓八十錢大引一[illegible]

後場閑散

保勢임으로不變의[illegible]閑散을呈하야東新百五圓二十錢[illegible]▲京取十七圓八十錢의各寄一口가잇섯슬뿐이다

健康與否診斷

[illegible]

動機待의商情

東京强氣主張

[illegible]

後場保勢

[illegible]

正米系益買增

[illegible]

各店賣買

[illegible]

京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期米 正米系賣壓

前場伸惱

[illegible]

京取短期後場步調

◇京取＝一六〇―引不成
◇東新＝一〇五〇―引不成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主要株取組高

[illegible]

阪仁輸漸擴大

[illegible]

延取 各地市況

▲大邱後場（十八日）[illegible]

▲大邱前場（十九日）[illegible]

▲釜山後場（十八日）[illegible]

▲釜山前場（十九日）[illegible]

仕手關係 [illegible]

正米 市況이不振

京城保勢 [illegible]

仁川少高 [illegible]

釜山少高 [illegible]

木浦强硬 [illegible]

大邱堅調 [illegible]

正米事情 [illegible]

群山後場（十八日）[illegible]

群山前場（十九日）[illegible]

群山少强 [illegible]

正米事情 [illegible]

一月中振替額

受拂이各增加

[illegible]

京取短期取引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期米 仁川前場 [illegible]

代引算定日步 [illegible]

大阪前場 [illegible]

延取 東京前場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釜山 [illegible]

群山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illegible]

京城正米時勢 [illegible]

大豆定期 [illegible]

仁川大豆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京城金銀市時勢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滿洲各地市況 [illegible]

滿洲取引所株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日本金利 [illegible]

公告

[illegible] 昭和五年二月十八日 [illegible]

邊基喆 [illegible]

筆生募集 [illegible] 榮光社

銀時勢의 [illegible] 特價金圓五十錢 [illegible] 發行所 安東 [illegible]

本社京販 電話 [illegible]

레-벤 [illegible]

神經痛과 류마지스 [illegible]